

시 · 소설 · 극 · 수필

문학 개념 요약

개념 342개 · 확인 문항 61개 · 고전 어휘 사전

핵심 질문

한눈에

개념 카드

헛갈림

짧은 확인

더 많은 무료 학습 자료

자료실 <https://leessaem.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essaem84>

유튜브 @jaewoo84

전체 지도

시 말하는 이·상황·정서와 표현 시01~시10	소설 인물·사건·배경과 전달 방식 소설01~소설08	극 말·행동과 무대·영상의 표현 극01	수필 경험·생각·성찰 수필01
---	--	---------------------------------------	-------------------------------

핵심 질문으로 개념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짧은 예에서 판단 근거를 찾아보자. 확인 문제를 푼 뒤 책 뒤의 정답과 비교한다.

목차

시01	말하는 이와 시적 상황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3
시02	정서·태도·어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대하며, 어떤 말투로 드러내는가?	5
시03	시어의 의미와 이미지	이 말은 이 작품에서 무엇을 뜻하고 어떤 느낌을 만드는가?	11
시04	비유와 상징	무엇을 무엇에 빗대거나, 어떤 대상으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가?	14
시05	운율과 시상 전개	말의 가락과 생각·감정의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7
시06	말의 뜻과 말하기 방식	겉뜻과 속뜻, 질문의 목적, 감정의 강도, 발화 관계를 구별했는가?	22
시07	표현의 배열과 강조	어떤 말을 어떤 관계로 배치하여 무엇을 강조하는가?	25
시08	감정과 관념을 드러내는 방법	사물·장면·행동이 화자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28
시09	작품과 보기의 해석	보기의 설명이 작품의 어느 표현과 실제로 연결되는가?	30
시10	고전 시가의 상황과 주제	고어를 풀고, 상황과 관습적 의미를 연결했는가?	32
소설01	인물과 심리·태도	누가 무엇을 원하며, 말과 행동은 어떤 성격을 보여 주는가?	38
소설02	사건과 갈등	무엇이 충돌하며, 어떤 선택이 다음 사건을 만드는가?	42
소설03	사건의 순서와 구성	실제로 일어난 순서와 독자에게 들려주는 순서는 같은가?	45
소설04	배경과 소재	어디서 어떤 조건 아래 사건이 일어나며, 반복되는 대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49
소설05	서술자·시점·거리	누가 말하고, 누구의 눈으로 보며, 어디까지 아는가?	52
소설06	서술 방식과 문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들려주어 어떤 효과를 만드는가?	56
소설07	주제·감상·변용	작품의 어떤 근거를 어떤 관점으로 연결하여 의미를 읽는가?	60
소설08	고전 소설의 특징	인물·사건·구성의 관습이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62
극01	극의 인물·대사·행동	대사와 행동이 관객에게 어떤 사건과 갈등을 보여 주는가?	66
수필01	경험·생각·표현	경험과 관찰이 어떤 생각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가?	71
	부록 — 고전 어휘 사전		73
	다시 비교하기		78
	정답과 해설		80

1부 시

말하는 관계

화자·청자·대상과
시적 상황

마음의 반응

정서·태도·어조

의미의 표현

시어·이미지·비유·
상징

말과 생각의 배열

운율·시상 전개·
표현 방식

근거 확인

작품의 말과
보기의 조건

1부 시

시01

말하는 이와 시적 상황

핵심 질문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한눈에

작품 밖

시인 시01-02

실제로 시를 쓴 사람

작품 안의 목소리

화자 시01-01

말을 건네는 상대

청자 시01-03

주목하는 존재

시적 대상 시01-04

같은 존재가 청자·대상 두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적 상황 시01-05

그 말과 마음의 바탕

화자·청자·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화자 시01-01

시 안에서 말하는 존재.

예 봄비를 기다리는 나는 오늘도 하늘을 본다.

❗ ‘나’가 드러나지 않아도 화자는 있다. 인용된 말 속의 ‘나’는 따로 구별한다.

시인 시01-02

시를 창작한 실제 사람.

❗ 작품의 화자를 시인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청자 시01-03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

신호 부름말 명령 청유

예 바다야,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들어 다오.

! 부름말·명령·청유 등이 단서가 된다. 실제 응답이 없어도 설정될 수 있다. 청자가 있다고 반드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 시06-08

시적 대상 시01-04

화자가 주목하거나 이야기하는 존재.

예 나는 길가의 민들레를 오래 바라보았다.

! 사람·사물·사건·관념, 화자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적 상황 시01-05

화자나 대상이 놓인 시간·공간·관계·사건의 형편.

예 겨울밤, 막차가 끊긴 정류장에 홀로 남았다.

! 정서와 태도를 판단하는 바탕이다.

헛갈림

청자 vs 대상

말을 건네는가 / 주목하는가

● 바다에게 바다 이야기를 하면 둘 다 가능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0쪽

민서야, 네가 떠난 뒤에도
나는 네 빈 의자 옆에 물 한 잔을 놓는다.

시01-Q01 위 예시의 화자는 시인인가, 시 속의 ‘나’인가?

시01-Q02 민서는 청자와 시적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자.

핵심 질문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대하며, 어떤 말투로 드러내는가?

한눈에

정서 시02-01

느끼는 **마음**

태도 시02-02

대하는 **자세**

어조 시02-03

말의 **목소리**

어휘는 판단 질문별 9묶음

- | | | |
|------------------|-----------------------|----------------------|
| ①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② 앞날을 어떻게 보고 삶을 대하는가? | ③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 ④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는가? | ⑤ 떨어져 바라보거나 넘어서려 하는가? | ⑥ 무엇을 바라고 찾는가? |
| ⑦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 ⑧ 어떻게 단언·의심·요구하는가? | ⑨ 웃음과 비웃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

! 저항·의지·수용·순응·체념은 한 줄의 강도 순서가 아니며, 서로 다른 태도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성찰적 시02-11

반성적 시02-10

성찰은 반성보다 범위가 넓다.

정서·태도·어조: 무엇을 판단하는가?

정서 시02-01

상황이나 대상 때문에 느끼는 마음.

예 네 편지를 받으니 기쁘다.

! 기쁨·슬픔·그리움·외로움 등이다.

태도 시02-02

상황이나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자세.

예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하겠다.

! 수용·저항·성찰·체념·지향 등이다.

▶ 소설01-13

어조 시02-03

말에서 느껴지는 목소리의 성격.

예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단호한 목소리.

! 종결 표현, 어휘, 반복, 말의 강도와 상황을 함께 본다.

바로 확인

정답·해설 ▶ 80쪽

아직 네가 그림다.
그래도 나는 오늘의 문을 열겠다.

시02-Q01 첫 행의 정서와 둘째 행의 태도를 각각 ‘그리움·의지·체념’ 중에서 고르자.

①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저항적 시02-23

부당한 현실이나
강요에 맞서려는
성격.

예 침묵을
강요해도
부당함을
밝히겠다.

의지적 시02-22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려는 뜻이
두드러지는 성격.

예 길이 험해도
끝까지
걸어가겠다.

수용적 시02-31

상황이나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격.

예 이미 생긴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순응적 시02-32

주어진 흐름이나
조건에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성격.

예 물길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
흘러가리라.

체념적 시02-33

바꾸거나 이를 수
없다고 여겨 기대·
뜻을 접는 성격.

예 이를 수
없다고 여겨
꿈을 접었다.

바로 확인

정답·해설 ▶ 80쪽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도 그만두기로 했다.

시02-Q04 이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체념적 중 무엇인가?

② 앞날을 어떻게 보고 삶을 대하는가?

낙관적 시02-05

앞으로 일이 잘되거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바라보는
성격.

예 이 고비를 넘으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비관적 시02-20

상황이나 앞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성격.

예 앞으로도 **형편은 더 나빠질 것이다.**

절망적 시02-21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성격.

예 어디에도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

낙천적 시02-06

삶을 밝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성향.

예 작은 즐거움을 찾아 **늘 웃으며 하루를 산다.**

! 미래의 전망에 초점을 두는 낙관과 구별한다.

③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긍정적 시02-04

대상이나 상황의 가치·가능성을 인정하는 성격.

예 서툰 첫걸음에도 배울 가치가 있다.

부정적 시02-18

대상이나 상황의 가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성격.

예 금으로 빛나도 남의 눈물을 팔아 올린 탑에는 고개를 돌린다.

예찬적 시02-08

대상의 훌륭함이나 아름다움을 높이 기리는 성격.

예 밤을 지킨 등불이여, 너의 헌신은 숭고하다.

▶ 시10-15

비판적 시02-19

대상의 잘못·모순·문제점을 따져 드러내는 성격.

예 약자에게만 짐을 지우는 제도는 잘못되었다.

④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는가?

성찰적 시02-11

자신의 삶·마음·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성격.

예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범위가 넓다.

반성적 시02-10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성격.

예 내 성급한 판단이 너를 아프게 했구나.

회고적·회상적 시02-34

지나간 일을 돌이켜 떠올리는 성격.

예 그 여름 함께 수영하던 날을 떠올린다.

❗ 회상 자체가 반드시 후회는 아니다.

⑤ 떨어져 바라보거나 넘어서려 하는가?

관조적 시02-12

대상을 차분히 바라보며 그 의미를 음미하는 성격.

예 지는 꽃을 차분히 바라보며 때의 흐름을 생각한다.

❗ 무관심과 같지 않다.

달관적 시02-13

삶의 이치나 한계를 이해하여 눈앞의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

예 만남과 이별도 삶의 이치임을 알아 얻고 잃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 조용한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근거를 찾는다.

초월적 시02-14

현실의 한계·고통·이해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성격.

예 몸은 갇혀도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다.

탈속적 시02-15

세속의 명예·이익·번잡함에서 벗어나려는 성격.

예 벼슬과 재물의 다툼을 떠나 산에 머문다.

⑥ 무엇을 바라고 찾는가?

이상적 시02-07

바람직하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상태를 추구하거나 드러내는 성격.

예 누구도 굶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기원적 시02-35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격.

예 부디 네가 가는 길에 아픈 날보다 웃는 날이 많기를.

구도적 시02-36

진리나 삶의 근본적인 이치를 찾으려는 성격.

예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밤새 답을 찾아 등불 앞에 앉아 있다.

⑦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애상적 시02-16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두드러지는 성격.

예 다시 볼 수 없는 너의 빈방 앞에서 오늘도 눈시울을 붉힌다.

격정적 시02-17

감정이 거세고 격렬하게 드러나는 성격.

예 분노가 치밀어 온몸을 떨며 소리쳤다.

영탄적 시02-09

기쁨·슬픔·감탄 등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성격.

예 아, 이렇게 벅찬 기쁨이라니!

⑧ 어떻게 단언·의심·요구하는가?

단정적 시02-24

망설임 없이 확실하다는 듯 말하는 성격.

예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회의적 시02-26

기존의 생각·가치·가능성을 의심하는 성격.

예 이 믿음이 과연 옳거나 한가.

명령적 시02-25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성격.

예 지금 문을 열어라.

⑨ 웃음과 비웃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해학적 시02-30

익살과 재미로 웃음을 유발하는 성격.

예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머리에 얹고
돋보기를 찾아 가족이 웃었다.

! 대상에 대한 친근함·연민과 결합하기도 한다.

▶ 소설06-17

풍자적 시02-29

대상의 모순·부정을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성격.

예 공정함을 외친 심판이 제 아이에게만
출발선을 앞당겨 주었다.

▶ 소설06-16

냉소적 시02-27

대상을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성격.

예 그들의 약속이라니, 허황된 말장난이
가소롭다.

▶ 소설06-19

자조적 시02-28

자신의 처지나 한계를 스스로 비웃는 성격.

예 허세만 부리다 넘어진 내 꼴이 참 우습다.

! 비웃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다.

▶ 시02-27

헛갈림

낙관 vs 낙천

앞날의 전망 / 삶을 밝게 대하는 성향

● 해결될 것이다 / 작은 즐거움을 누린다

반성 vs 성찰

잘못·부족함을 돌아봄 / 삶·마음을 폭넓게 살핌

● 반성은 성찰에 포함되지만 성찰이 모두 잘못의
뉘우침은 아니다

회상 vs 반성

기억을 떠올림 / 잘못을 돌아봄

✗ 어린 날을 떠올렸다고 반드시 반성은 아니다

영탄적 vs 영탄법

감정이 강한 성격 / 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

● 감탄사·감탄형 종결로 영탄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수용 vs 순응 vs 체념

인정 / 흐름에 따름 / 기대를 접음

● 현실을 인정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
기대를 접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비판 vs 냉소

문제를 따짐 / 차갑게 비웃음

✗ 모든 비판이 냉소는 아니다

주의

! ‘비판적·성찰적’처럼 태도와 어조를 함께 설명하는 말도 있다. 정서는 슬퍼도 태도는 성찰적일 수 있으므로 한 단어를 한 범주에만 가두지 않는다.

! 감정이 바뀌는지, 서로 다른 감정이 함께 드러나는지도 확인한다.

비교할 묶음 · ② 앞날 · ④ 돌아봄

- (가) 내일이면 이 문제도 풀릴 것이다.
- (나) 나는 왜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

시02-Q02 (가)는 낙관적·자조적 중 무엇인가? (나)는 예찬적·반성적 중 무엇인가?

비교할 묶음 · ① 현실 대응 · ⑨ 웃음의 방향

- (가) 남의 실수는 잘못도 찾으려 제 잘못은 못 보는 내가 우습구나.
- (나) 이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

시02-Q03 (가)는 자조적·예찬적 중, (나)는 저항적·순응적 중 무엇인가?

핵심 질문 이 말은 이 작품에서 무엇을 뜻하고 어떤 느낌을 만드는가?

한눈에

감각

시03-07~18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회화·색채, 공감각·복합 감각

방향·움직임

시03-19~22
상승·하강, 동적·정적

생성·소멸

시03-23~24
생겨남·사라짐

화자의 가치 판단

시03-05~06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 네 기준은 서로 겹칠 수 있다. 방향이 곧 가치 판단을 정하지 않는다.

공감각적 이미지 시03-17

감각 A → 감각 B의 말

감각의 전이

복합 감각적 이미지 시03-18

감각 A + 감각 B

감각의 병렬

시어는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는가?

시어의 문맥상 의미 시03-01

시 안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되는 의미.

예 '집'은 돌아갈 건물보다 마음 놓일 품을 가리킨다.

! 사전 뜻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제목과 중심 상황 시03-02

제목의 대상·중심 생각을 본문의 상황과 연결해 읽기.

예 제목 '귀로'를 고향으로 향하는 본문의 발걸음과 연결한다.

! 시간·공간·사건은 해석의 조건이다. 제목에 생략된 말이 있으면 본문에서 보완한다.

시어 사이의 관계 시03-03

수식어와 서술어, 유사·대립 관계, 반복되는 말을 연결하여 의미를 좁힌다.

예 '밤'을 품어 준다고 하여 포근한 의미를 드러낸다.

이미지·심상 시03-04

읽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감각적 형상이나 인상.

예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는다.

! 좁게는 감각적 심상, 넓게는 대상에서 받는 느낌을 뜻한다. '감각적'은 막연히 느낌이 좋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말이 어떤 감각을 일으키는지 짚는다.

긍정적 이미지 시03-05

문맥에서 화자가 반기거나 지향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미지.

예 그들이 지친 나를 편히 쉬게 한다.

부정적 이미지 시03-06

문맥에서 화자가 꺼리거나 거부하고 문제로 여기는 이미지.

예 칠후 같은 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어떤 감각을 떠올리게 하는가?

시각적 이미지 시03-07

색·빛·모양·크기 등 눈으로 보는 듯한 이미지.

예 담장에 번진 노란 불빛.

청각적 이미지 시03-08

귀로 듣는 듯한 이미지.

예 빈 계단을 올리는 구두 소리.

후각적 이미지 시03-09

냄새를 맡는 듯한 이미지.

예 비 온 뒤 올라오는 젖은 흙냄새.

미각적 이미지 시03-10

맛을 느끼는 듯한 이미지.

예 허끝에 남는 산 자두 맛.

촉각적 이미지 시03-11

온도·압력·표면을 피부로 느끼는 듯한 이미지.

예 손바닥을 누르는 차가운 쇠.

회화적 이미지 시03-12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 보이게 하는 것.

예 푸른 언덕 아래, 작은 흰 집과 굵은 길이 보인다.

색채어 시03-13

‘붉다·푸르다’처럼 색을 직접 나타내는 말.

신호 붉다·푸르다·희다·검다 등 색을 직접 나타내는 말

예 지붕 위로 붉은 해가 솟는다.

색채 이미지 시03-14

색을 직접 말하거나 사물을 통해 특정 색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예 골목을 덮은 백설이 햇빛을 받는다.

❗ 색채어보다 범위가 넓다.

색채 대비 시03-15

서로 다른 색을 맞세워 차이를 부각하는 것.

예 검은 담장에 노란 꽃이 피었다.

❗ 문맥에서 어떤 성질이 강조되는지 본다.

명암 대비 시03-16

밝음과 어둠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

예 환한 창 안과 캄캄한 골목이 맞선다.

❗ 색깔의 차이와 구별하되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이미지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공감각적 이미지 시03-17

한 감각의 대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이미지.

신호 감각 대상을 다른 감각의 말로 꾸미거나 서술함

예 푸른 휘파람 소리가 퍼진다. — 청각의 시각화.

❗ 전이 방향은 표현하려는 감각에서 빌려온 감각으로 짚는다.

복합 감각적 이미지 시03-18

둘 이상의 감각을 함께 제시함.

신호 서로 다른 감각 표현을 각각 나란히 제시함

예 빵 냄새가 나고 종소리가 들린다.

❗ ‘차고 달콤한 과일’은 촉각과 미각의 나열일 수 있다. 두 감각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감각은 아니다.

상승 이미지 시03-19

위로 오르는 방향이 드러남.

예 풍선이 **하늘로** 오른다.

❗ 그 자체로 희망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강 이미지 시03-20

아래로 내리는 방향이 드러남.

예 낙엽이 **땅으로** 내려앉는다.

❗ 그 자체로 절망을 뜻하지는 않는다.

동적 이미지 시03-21

움직임과 변화가 두드러지는 이미지.

예 물살이 바위를 넘어 **내달린다**.

정적 이미지 시03-22

멈추거나 고요한 상태, 움직임이 거의 없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이미지.

예 빈 방의 의자가 **움직임 없이** 놓여 있다.

생성 이미지 시03-23

없던 것이 생겨나거나 새로 형성되는 느낌을 드러내는 이미지.

예 메마른 가지에 **새잎이** 돋는다.

소멸 이미지 시03-24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느낌을 드러내는 이미지.

예 마지막 촛불이 **꺼져** 사라진다.

헛갈림

공감각 vs 복합 감각

감각의 전이 / 감각의 나열

🎧 푸른 소리 / 빵 냄새와 종소리

하강 vs 부정

방향 / 가치 판단

❌ 내려온다고 반드시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

! 이미지는 정서·태도·상황이나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밝음=긍정, 어둠=부정’처럼 소재만 보고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0쪽

모두 잠든 밤, 눈부신 광고판이
내 방의 작은 어둠마저 빼앗는다.

시03-Q01 광고판의 밝음은 이 화자에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근거가 되는 서술어를 쓰자.

붉은 우편함 옆에 흰 의자가 놓였다.
빈 골목 끝에서 종이 울렸다.

시03-Q02 첫 문장의 색채 대비를 이루는 두 말을 쓰자. 둘째 문장의 감각은 무엇인가?

가뭄 끝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나는 두 손을 펴고 그 비를 맞는다.

시03-Q03 하강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O / X

시03-Q04 ‘까슬까슬한 종소리’는 청각의 촉각화인가, 촉각의 청각화인가?

핵심 질문 무엇을 무엇에 빗대거나, 어떤 대상으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가?

한눈에

비유 시04-01

원관념 시04-02

본래 드러내려는 대상

보조 관념 시04-03

표현을 위해 빌려온 대상

관계: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다.

① 빗대는 관계를 드러내거나 숨기기

직유법 시04-04

은유법 시04-05

풍유법 시04-08

② 사람·생명의 성질 주기

의인법 시04-06

활유법 시04-07

③ 일부·관련 대상으로 대신하기

대유법 시04-09

제유법 시04-11

환유법 시04-10

상징 시04-12

비유와 별도로 본다

원형적 상징 시04-13

관습적 상징 시04-14

개인적·창조적 상징 시04-15

의미를 공유하는 범위: 넓다 → 좁다

! 공유 범위로 구별할 뿐, 정해진 진행 순서가 아니다.

비유의 기본 관계

비유 시04-01

드러내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예 불안이 덩굴처럼 마음을 감는다.

! 무엇과 무엇의 어떤 관계인지 확인한다.

원관념 시04-02

비유에서 본래 드러내려는 대상.

예 마음은 잠긴 서랍이다.

보조 관념 시04-03

원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빌려온 대상.

예 마음은 잠긴 서랍이다.

① 빗대는 관계를 드러내거나 숨기기

직유법 시04-04

‘처럼·같이·듯’ 등의 연결 표현으로 빗댄.

신호 (처럼) (같이) (듯)

예 걱정이 먼지**처럼** 쌓인다.

❗ 단순한 동일성 비교와 빗대는 표현을 구별한다.

은유법 시04-05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과 동일시하여 빗댄.

신호 A는 B이다 등의 동일시 표현

예 내 마음은 잠긴 **서랍**이다.

❗ A는 B이다 형식만으로 은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는 학생이다’는 단순한 사실 진술이다.

풍유법 시04-08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 관념으로 속뜻을 드러내는 비유.

예 일을 그르친 뒤 손쓰는 사람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빗댄다.

❗ 속담·우화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사람·생명의 성질 주기

의인법 시04-06

사람 아닌 대상에 사람의 생각·감정·행동을 부여하는 표현.

신호 사물·자연 등에 꾸짖음·판단·대화 같은 인간적 행동을 부여함

예 벽시계가 늦잠 잔 나를 **꾸짖었다**.

활유법 시04-07

생명이 없는 대상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함.

신호 무생물에 숨 쉬기·맥박 같은 생명 현상을 부여함

예 고요한 항구가 **숨을 쉰다**.

③ 일부·관련 대상으로 대신하기

대유법 시04-09

일부나 밀접한 관련 대상·속성으로 대신 나타내는 비유.

예 공사판에 **일손**이 더 필요하다. — 손으로 사람을 대신함.

❗ 제유와 환유를 포함한다.

제유법 시04-11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냄.

예 들판의 **손들**이 보리를 벤다. — 신체 일부로 사람 전체를 나타냄.

환유법 시04-10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빌려 나타냄.

예 화가가 **붓**을 놓았다. —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둠.

상징과 의미의 공유 범위

상징 시04-12

구체적 대상이 그 자체를 넘어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것.

예 고난 중에도 지킨 **작은 불씨**가 희망을 뜻한다.

❗ 무엇을 뜻하는지는 작품의 맥락으로 확인한다.
뜻하는 관념을 직접 밝히지 않고 구체적 대상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다만 풍유도 원관념을 숨기므로 그 유무만으로 상징을 판정하지 않는다.

원형적 상징 시04-13

문화·시대를 넘어 널리 반복되는 상징.

예 여러 문화의 이야기에서 **빛**을 생명과 **희망**에 연결한다.

❗ 불·물·빛·어둠 등의 의미가 여러 문화에서 나타난다. 작품마다 같은 뜻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관습적 상징 시04-14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공유되어 온 뜻을 지닌 상징.

예 한 문화에서 **대나무**를 **절개**에 연결해 왔다.

개인적·창조적 상징 시04-15

특정 작가나 작품의 독특한 맥락에서 의미를 얻는 상징.

예 이 작품에서만 **파란 단추**가 형제의 약속을 뜻한다.

헛갈림

의인 vs 활유

사람의 성질 / 생명성

● 꾸짖다 / 숨 쉬다; 둘이 겹칠 수 있다

직유 vs 단순 비교

빛대는가 / 사실상 정도를 비교하는가

✕ 키가 형과 같다는 말만으로 직유는 아니다

비유 vs 상징

빛대는 관계 / 대상이 품는 뜻

● 풍유도 원관념을 숨기므로 겉에 드러난 원관념 유무만으로 나누지 않는다

대유 vs 상징

일부·관련 대상으로 대신함 / 다른 뜻을 품음

● 일손으로 사람을 나타냄 / 불씨로 희망을 드러냄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0쪽

달빛이 창가에 앉아
내 걱정을 조용히 들어 준다.

시04-Q01 달빛을 의인화했다고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을 쓰자.

이 마을 사람들은 흰 깃발을 화해의 표지로 삼아 왔다.

시04-Q02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뜻이라는 점에서 어떤 상징인가?

핵심 질문 말의 가락과 생각·감정의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눈에

A. 운율

시05-01~12 · 말의 가락

B. 시상 전개

시05-13~31 · 생각·감정의 흐름

! 두 묶음을 나누어 읽는다. 각 묶음 앞에서 관계를 다시 확인한다.

A. 운율 한눈에

운율을 만드는 반복 요소

음운·음절

음보

시어·시구·시행

문장 구조

서로를 포함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운율을 만드는 여러 요소다.

규칙적 형식이 겹에 드러나는가?

그렇다

외형률 시05-02

뚜렷하지 않다

내재율 시05-03

반복을 바꾸어 쓰기

변주 시05-11

A-A-B-A 구조 시05-12

A-A-B-A는 반복 속에 변화를 준 배열이다.

운율을 만드는 요소

운율 시05-01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예 가자, 가자, 새 길로 가자.

! 소리뿐 아니라 호흡과 의미의 배열도 관여한다.

외형률 시05-02

일정한 음절 수·음보 수 등 규칙적인 형식이 겹으로 드러나는 운율.

신호 행마다 되풀이되는 일정한 음절 수·음보 수

내재율 시05-03

일정한 형식이 뚜렷하지 않아도 말의 호흡과 의미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운율.

예 '기다린다. 바람이 멎는다. 다시 기다린다.'의 호흡에서 가락을 느낀다.

! 규칙적인 외형률이 없다는 사실이 곧 운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음수율 시05-04

일정한 음절 수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운율.

신호 3·4조, 7·5조 등 음절 수의 반복

예 '새들이 / 날아간다'와 '별들이 / 떠오른다'의 3·4음절 반복.

음보율 시05-05

일정한 호흡 단위인 음보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운율.

신호 같은 수의 호흡 단위가 되풀이됨

예 ‘푸른 산 / 흰 구름 / 먼 마을’의 세 호흡이 다음 행에서도 반복된다.

! 음절 수와 음보 수를 혼동하지 않는다.

음성 상징어 시05-06

소리나 모양·움직임을 흉내 낸 말.

예 문을 탕탕, 발을 살금살금.

!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른다.

의성어 시05-07

소리를 흉내 낸 말.

신호 탕탕·쨍그랑 등 소리를 흉내 낸 낱말

예 깨진 유리의 쨍그랑 소리.

의태어 시05-08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신호 강충강충·살금살금 등 동작·모양을 흉내 낸 낱말

예 강아지가 강충강충 댕다.

후렴구 시05-09

연이나 단락의 일정한 위치에 되풀이되는 말.

신호 각 연의 같은 위치에 돌아오는 구절

예 각 연 끝에 ‘우리 함께 가자’가 되풀이된다.

! 운율·통일감·강조에 관여한다.

여음 시05-10

노랫가락을 돕는 소리로, 뚜렷한 어휘적 뜻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 노래 끝에서 ‘라라라’로 가락을 이어 간다.

! 후렴에 쓰이기도 한다.

변주 시05-11

같은 틀이나 의미를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바꾸어 반복하는 것.

신호 같은 틀에서 일부 낱말만 달라지는 반복

예 ‘푸른 길을 걷자’가 ‘푸른 꿈을 꾸자’로 바뀌어 반복된다.

A-A-B-A 구조 시05-12

비슷한 표현 A를 반복하다 B로 변화를 주고 A로 돌아오는 배열.

예 가자 / 가자 / 잠시 쉬자 / 가자.

! B와 마지막 A의 기능을 살핀다.

B. 시상 전개 한눈에

시간

순행적 흐름 시05-15

역순행적 흐름 시05-16

순환적 흐름 시05-17

공간·시선

공간 이동 시05-18

시선 이동 시05-19

추보식 구성 시05-20

대응과 배열

수미상관·수미상응 시05-21

대비에 의한 전개 시05-22

선경후정 시05-23

기승전결 시05-24

부분이 하는 일

시상 유발 시05-25

시상 확산 시05-26

시상 심화 시05-27

시상 고조 시05-28

시상 전환 시05-29

시상 집약 시05-30

시상 마무리 시05-31

! 반드시 이 순서로 진행하지 않는다.

시간·공간·부분의 관계

시상 시05-13

시에 담긴 생각과 감정.

예 떠난 이를 그리워하면서도 새날을 맞으려는 마음.

시상 전개 시05-14

시상을 일정한 순서와 관계로 펼치는 방식.

예 이별의 슬픔에서 재회의 희망으로 생각을 펼친다.

! 배열을 찾은 뒤 의미의 변화를 설명한다.

순행적 흐름 시05-15

과거에서 현재로, 봄에서 여름으로 등 시간의 앞뒤 순서에 따라 전개함.

신호 새벽·아침·낮 등 앞뒤 시간의 순서

예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되고 낮이 된다.

역순행적 흐름 시05-16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등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전개함.

신호 현재의 장면 뒤에 제시되는 과거의 장면

예 오늘 빈 운동장을 보다가 지난봄의 경기를 떠올린다.

순환적 흐름 시05-17

계절·하루 등 되풀이되는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전개함.

신호 봄에서 다음 봄처럼 되돌아오는 시간

예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는다.

공간 이동 시05-18

화자가 실제로 장소를 옮기며 시상이 전개됨.

신호 걷다·떠나다·도착하다 등 실제 위치 변화

예 나는 집을 나서 강가로 걸어간다.

시선 이동 시05-19

바라보는 위치·방향·대상이 바뀌며 시상이 전개됨.

신호 바라보다·눈길을 돌리다 등 주시 대상의 변화

예 의자에 앉은 채 발밑의 꽃에서 먼 산으로 눈을 돌린다.

❗ 화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추보식 구성 시05-20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간을 옮겨 가는 과정에 따라 전개함.

예 아침에 포구를 떠나 저녁에는 고개에 닿는다.

수미상관·수미상응 시05-21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표현·내용을 대응시킴.

신호 첫 부분과 끝부분의 같거나 비슷한 표현

예 첫 행과 마지막 행을 ‘등불은 아직 켜져 있다’로 대응시킨다.

❗ 안정감·강조·운율 등을 만든다.

대비에 의한 전개 시05-22

시간·공간·대상·상태 등을 맞세워 차이를 부각하며 시상을 펼침.

예 메마른 도시와 푸른 숲을 번갈아 보여 준다.

선경후정 시05-23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연결되는 감정을 뒤에 드러냄.

신호 경치가 먼저, 그와 연결된 감정이 나중에 제시됨

예 강 위에 달이 떴다. / 그 고요함에 마음이 놓인다.

❗ 앞의 경치에도 정서가 배어 있을 수 있다.

기승전결 시05-24

시상을 시작하고, 이어 가고, 전환하고, 마무리하는 전개.

예 봄길을 시작함·꽃을 살핌·이별을 떠올림·다시 걷기로 함.

❗ 단순히 네 연이라는 뜻이 아니다.

시상이 하는 일

시상 유발 시05-25

어떤 대상·사건·감각이 생각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

예 종소리를 듣고 옛 교실을 떠올린다.

시상 확산 시05-26

생각이나 감정이 여러 대상·상황으로 넓어지는 것.

예 한 아이의 슬픔에서 마을 전체의 아픔으로 생각이 넓어진다.

시상 심화 시05-27

이미 나타난 생각이나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예 그리움을 말하다 그 마음의 까닭까지 깊이 돌아본다.

시상 고조 시05-28

감정의 강도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예 기쁨이 차올라 마침내 환호한다.

시상 전환 시05-29

생각·감정·장면 등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예 원망하던 마음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달라진다.

시상 집약 시05-30

앞에서 펼친 생각이나 감정을 한 표현·장면에 모으는 것.

예 여러 장면의 뜻을 ‘함께 살아갈 길’에 모은다.

시상 마무리 시05-31

시상의 흐름을 끝맺는 것.

예 끝에서 내일 다시 만나자는 약속으로
닫는다.

❗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헛갈림

음절 vs 음보

글자 소리 수 / 읽는 호흡 단위

● 같은 음보에도 음절 수가 다를 수 있다

공간 이동 vs 시선 이동

몸의 위치 변화 / 바라보는 방향 변화

● 제자리에 서서도 먼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

전환 vs 심화 vs 고조

방향 / 깊이 / 강도

● 마음이 달라짐 / 뜻을 깊이 살핌 / 감정이 격해짐.
한 대목에 두 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주의

! 한 시에 여러 전개 방식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시간·공간의 변화가 정서·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핀다.

! 시간 순서가 뒤섞인 경우에는 각 부분의 관계를 복원하여 읽는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0쪽

문을 열면 바람이 온다.

창을 열면 햇살이 온다.

시05-Q01 두 행에서 바뀌지 않고 되풀이되는 말 두 개를 쓰자.

시05-Q02 같은 문장 틀의 반복은 운율 형성에 관여할 수 있다. O / X

나는 창가에 선 채 골목을 본다.

내 눈길은 지붕을 넘어 산 너머 구름에 닿는다.

시05-Q03 화자의 실제 공간 이동과 시선 이동 중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을 고르자.

나는 모든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쓰러진 나무 옆에서 새싹을 보았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다시 말했다.

시05-Q04 둘째 행을 계기로 세 행의 생각이 이어지는 방식은 전환·심화·고조 중 무엇인가?

핵심 질문 겉뜻과 속뜻, 질문의 목적, 감정의 강도, 발화 관계를 구별했는가?

한눈에

뜻: 겉말과 속뜻

반어법 시06-01

역설법 시06-02

질문의 목적

설의법 시06-03

문답법 시06-04

감정·부름

영탄법 시06-05

돈호법 시06-06

발화 관계

상대를 설정해 말을 건네는가

응답이 제시되는가

독백적 표현 시06-07

혼자 말함

X

X

말을 건네는 방식 시06-08

상대에게 말 건넌

○

없어도 된다

대화적 구성 시06-09

목소리의 주고받음

○

○

! 청자 설정과 실제 응답은 별개다.

반어·역설과 질문·감탄

반어법 시06-01

겉으로 한 말과 실제 의도가 반대인 표현.

신호 겉말의 평가가 실제 상황·의도와 반대임**예** 방을 어지른 동생에게 ‘아주 말끔히도 치웠구나’라고 한다.**!** 상황을 통해 속뜻을 확인한다.

▶ 소설06-20

역설법 시06-02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뜻을 드러내는 방식.

신호 양립하기 어려운 말을 한 표현에 결합함**예** 너와 헤어진 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모순되는 말이 어떤 뜻을 이루는지는 문맥에서 풀어야 한다.

설의법 시06-03

분명한 생각을 물음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표현.

신호 어찌 잊겠는가 등 생각을 강조하는 물음

예 갓을 수 없는 은혜를 두고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 정보를 얻으려는 실제 질문과 구별한다.

문답법 시06-04

질문과 답의 형식을 활용하는 방식.

신호 질문 다음에 답이 제시됨

예 무엇을 기다리느냐? 봄을 기다린다.

❗ 실제 대화뿐 아니라 자문자답도 포함한다.

영탄법 시06-05

감탄사·감탄형 종결·부름 등으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

신호 아오 같은 감탄사, 감탄형 종결, 감정이 실린 부름

예 오, 마침내 맞이한 자유여!

❗ 느낌표만으로 영탄을 판정하지 않는다.

▶ 시02-09

돈호법 시06-06

호격 표현 등을 써서 대상을 부르며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

신호 -아--야--여 등 부름말

예 달아, 내 마음을 전해 다오.

독백·말 건네기·대화

독백적 표현 시06-07

다른 상대와 말을 주고받지 않고 혼자 생각·감정을 말하는 방식.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내 마음을 되짚는다.

말을 건네는 방식 시06-08

상대를 설정하여 부르거나 질문·명령·청유 등을 하는 방식.

예 대답 없는 산을 향해 ‘산아, 함께 가자’라고 한다.

❗ 상대가 부재하거나 응답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대화적 구성 시06-09

둘 이상의 목소리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함.

신호 질문·응답 등 두 목소리의 주고받음

예 ‘어디 가니?’ / ‘강가로 간다.’ 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 실제 응답이 제시되는지, 대답 없는 상대를 가정해 말하는지를 구별한다. ‘대화체·대화적 어조’는 문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 넓게 부르기도 한다. 용어만 보고 실제 대화를 단정하지 말고 제시된 발화를 확인한다.

헛갈림

반어 vs 역설

겉말과 의도가 반대 / 모순된 표현의 의미

● 비꼬는 칭찬 / 끝이 시작이 됨

설의 vs 실제 질문

생각 강조 / 정보 얻기

✕ 물음표만으로 설의가 되지 않는다

청자 설정 vs 실제 대화

상대를 부름 / 응답을 주고받음

● 떠난 이를 불러도 그 응답은 없을 수 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0쪽

(가) 한 시간 늦은 친구에게 “참 일찍도 왔네.”라고 말했다.

(나)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 준 너의 침묵은 가장 큰 외침이었다.

시06-Q01 (가)와 (나)를 반어·역설로 각각 분류하자.

시06-Q02 길을 잃은 사람이 실제 방향을 몰라 “역이 어디인가요?”라고 묻는다. 설의법인가?

떠난 친구야, 오늘도 네 자리를 비워 둔다.

내 말을 듣고 있니. 대답 없는 방에 바람만 분다.

시06-Q03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가? 실제로 두 사람이 응답을 주고받는가?

핵심 질문 어떤 말을 어떤 관계로 배치하여 무엇을 강조하는가?

한눈에

짜과 대립

대구법 시07-02 구조의 짜 대조법 시07-01

뜻의 대립

!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되풀이

반복법 시07-04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시07-12

강도·범위의 변화

점층법 시07-05 점점 커짐 ▲

점강법 시07-06 점점 작아짐 ▼

끝말을 이어받음

연쇄법 시07-07

...꽃을 꽃이...

각각 다른 기준

도치법 시07-08

과장법 시07-09

시적 허용 시07-10

행간 걸침 시07-11

배열의 관계

대조법 시07-01

서로 다른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

신호 서로 반대되거나 차이 나는 의미를 맞세움

예 작은 몸에 큰 뜻을 품었다.

! 의미 관계에 초점을 둔다.

대구법 시07-02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어 나란히 놓는 방식.

신호 유사한 문장 짜임을 나란히 짝지움

예 새는 숲을 찾고 / 배는 포구를 찾는다.

! 형식 관계에 초점을 둔다. 유사한 구조를 둘 이상 나란히 짝짓는 관계를 본다. 반드시 두 구절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 시07-12

열거법 시07-03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자격을 가진 여러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

신호 관련 항목이 심표·조사 등으로 이어짐

예 방에는 책과 지도와 연필이 놓였다.

반복법 시07-04

같거나 비슷한 말·구조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

신호 같거나 비슷한 말·구조가 재등장함

예 기다린다, 기다린다,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

! 운율과 통일감도 만들 수 있다.

점층법 시07-05

뜻의 강도·범위·규모를 점차 높이거나 크게 하는 방식.

신호 배열을 따라 강도·범위·규모가 커짐

예 한 사람, 온 마을, 온 나라가 소식을 알았다.

점강법 시07-06

뜻의 강도·범위·규모를 점차 낮추거나 작게 하는 방식.

신호 배열을 따라 강도·범위·규모가 작아짐

예 함성이 말소리로, 말소리가 속삭임으로 잦아들었다.

연쇄법 시07-07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에 이어 붙이며 반복하는 방식.

신호 앞 구절 끝말을 다음 구절 처음에서 이어받음

예 봄이 꽃을, 꽃이 향기를 부른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시07-12

같거나 비슷한 문장 짜임을 되풀이하는 표현.

예 첫 연의 ‘나는 ○을 기다린다’가 마지막 연에서도 다른 낱말과 함께 반복된다.

❗ 떨어진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다. 대구는 그 구조들이 나란히 짝을 이루는 관계에 주목한다.

어순·크기·언어 규범·행의 경계

도치법 시07-08

일반적인 어순을 바꾸어 특정 말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방식.

신호 목적어·주어 등이 일반적인 위치에서 옮겨짐

예 아름답구나, 저 새벽빛아.

과장법 시07-09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내어 의미·감정을 강조하는 방식.

예 바늘 끝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적 허용 시07-10

시적 효과를 위해 일반적인 언어 규범을 의도적으로 벗어난 표현.

예 더 아름답게 빛나라. — 현대 표준형 ‘아름답게’에서 벗어나 가락을 만든다.

❗ 단순 오기와 구별한다.

행간 걸침 시07-11

한 행에서 끝나지 않은 구문·의미가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 것.

신호 수식어나 서술 구조가 행 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행으로 이어짐

예 나는 새벽의 아직 잠들지 않은 / 불빛을 본다. — /는 행갈이.

❗ 의도적 행갈이로 호흡·긴장·강조를 조절한다. 모든 행갈이가 행간 걸침은 아니다.

헛갈림

대구 vs 대조

구조의 짝 / 뜻의 차이

● 비슷한 구조로 반대 내용을 말하면 둘 다 가능

대구 vs 통사 구조 반복

나란히 짝지은 관계 / 문장 짜임의 재등장

✗ 떨어진 구조 반복만으로 짝 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열거 vs 점층

항목 나열 / 점차 커짐

❌ 셋 이상 나열했다고 모두 점층은 아니다

도치 vs 주객전도

어순 / 주체와 대상 관계

🕒 뒤로 옮긴 목적어 / 바라보는 주체의 뒤바뀜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0쪽

나는 문을 닫고 슬픔을 숨겼다.

너는 문을 열고 기쁨을 나눴다.

연쇄 예: 말이 길을 만들고, 길이 만남을 만들고, 만남이 내일을 만든다.

시07-Q01 앞의 두 행에는 대구·대조 중 무엇이 나타나는가? 모두 고르자.

시07-Q02 ‘작은 속삭임이 말이 되고, 말이 외침이 되어 골목을 울렸다’는 점층·점강 중 무엇인가?

(가) 끝내 지키겠다, 우리의 약속을.

(나) 네 소식을 천 년은 기다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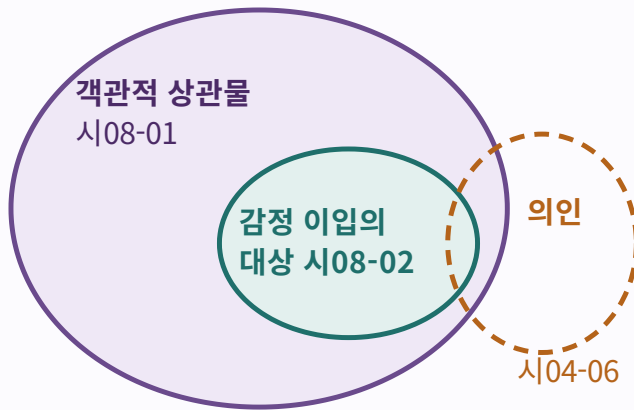
(다) 나는 아직 닫히지 않은

그 문 앞에 서 있다.

시07-Q03 (가)·(나)·(다)를 도치·과장·행간 걸침에 각각 연결하자.

핵심 질문 사물·장면·행동이 화자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눈에



! 객관적 상관물 > 감정 이입의 대상. 포함되는 것은
‘감정 이입’이라는 표현 행위가 아니라 그 **대상**이다.
! 의인과 감정 이입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뜻은 아니다.

별도 기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시08-04

주관적 변용 시08-05

주객전도 시08-06

상관물과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시08-01

감정·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드러내는 구체적 대상·장면.

예 먼지 쌓인 운동화가 **함께 걷던 날의 그리움을 불러온다.**

감정 이입 시08-02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옮겨, 대상도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

예 내가 들떠 웃는 날, **꽃도 나처럼 기뻐 웃는다.**

투영·투사·의탁 시08-03

대상에 화자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나타내기.

예 낡은 우산에 **서로 지켜 주려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다.**

! 대상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뜻까지 늘 포함하지는 않는다.

관념을 보이게 하고 관계를 바꾸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시08-04

시간·기다림·슬픔 등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형상화하는 방식.

예 후회가 검은 돌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주관적 반응 시08-05

사물·현상·행위를 객관적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화자의 인식과 감정에 따라 바꾸어 표현하는 것.

예 반가운 소식을 듣자 온 거리가 환히 웃는 듯했다.

! 감정 이입·의인·비유 등과 겹칠 수 있다.

주객전도 시08-06

인식하거나 행동하는 주체와 그 대상을 뒤바꾸어 나타내는 방식.

예 내가 바다를 찾았는데, 바다가 나를 찾아왔다고 노래한다.

! 단순한 어순 변화와 다르다. 원래의 주체·대상 관계를 복원하여 판단한다.

헛갈림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의 대상

정서를 드러냄 /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함

● 대상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고도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의인 vs 감정 이입

인간적 성질 / 화자와 같은 감정

✕ 의인화했다고 반드시 화자의 감정과 같지는 않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가) 네가 떠난 뒤, 식탁의 빈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나) 네가 떠난 뒤, 나처럼 슬퍼진 가로수도 고개를 숙였다.

시08-Q01 감정 이입이 분명한 것은 (가)와 (나) 중 무엇인가?

시08-Q02 (가)의 빈 의자는 슬픔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가?

(가) 기다림이 긴 실이 되어 내 발을 현관에 묶었다.

(나) 나는 밤새 고향 산을 그리워했다. 돌아오는 길, 그 산이 나를 그리워하며 기다렸다고 느꼈다.

시08-Q03 (가)가 구체화한 추상적 관념과 빌려온 감각적 대상을 쓰자.

시08-Q04 (나)의 뒤 문장에서 그리워하는 주체와 대상은 앞 문장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핵심 질문 보기의 설명이 작품의 어느 표현과 실제로 연결되는가?

한눈에

보기의 정보·조건 확인

배경·해석을 돕는 보기

시09-01

판단 조건을 제시하는 보기

시09-02

작품 근거 연결

표현과 효과의 연결

시09-03

선지의 관계·범위 점검

주체·대상·원인·결과·범위

선지를 나누어 살필 항목 고정된 순서가 아니다

대상

행동

감정

표현

효과

! 감상 관점은 소설07-02~06을 함께 본다. 이 원칙은 시·소설·극·수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보기를 근거에 연결하기

배경·해석을 돕는 보기 시09-01

작가·시대·소재·상황에 관한 정보나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보기.

예 보기의 ‘**흰 끈은 이 마을에서 재회의 표지다**’라는 정보를 작품에 연결한다.

판단 조건을 제시하는 보기 시09-02

특정 개념·관점을 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도록 하는 보기.

예 ‘**작품과 독자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라**’는 조건으로 읽는다.

표현과 효과의 연결 시09-03

표현 방법의 이름을 확인한 뒤, 부각되는 속성·정서·태도·상황을 작품 근거로 설명하는 것.

예 ‘**굳은 마음은 돌이다**’의 비유가 결심의 단단함을 드러낸다.

헛갈림

보기 정보 vs 임의 추정

제공된 정보의 적용 / 근거 없는 추가

● 보기의 배경 정보는 쓸 수 있지만 작품 근거와 연결해야 한다

주의

! 선지는 대상·행동·감정·표현·효과를 나누어 확인한다. 일부 내용이 맞아도 주체·대상·원인·결과·범위의 연결은 틀릴 수 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작품: 닫힌 문 앞에서도 나는 열쇠를 버리지 않았다.

보기: 이 작품에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에 주목할 수 있다.

시09-Q01 ‘열쇠를 버리지 않았다’를 관계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할 수 있는가? 근거를 쓰자.

시10 고전 시가의 상황과 주제

핵심 질문 고어를 풀고, 상황과 관습적 의미를 연결했는가?

한눈에



대표 주제와 구별할 뜻

충의 시10-01

임금·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

예 나라가 위태로워도 **의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국지정 시10-02

나라의 형편을 걱정하는 마음.

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

❗ 충성의 다짐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연군지정 시10-03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 먼 곳에서 임금 계신 곳을 그리워한다.

❗ 이별한 임을 향한 표현에 빗대어 드러내기도 한다.

효 시10-04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는 도리.

예 어버이 은혜를 갚고자 정성껏 모신다.

풍수지탄 시10-05

부모가 돌아가신 뒤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슬퍼하는 마음.

예 돌아가신 부모께 못다 한 효도를 한탄한다.

애민 정신 시10-06

백성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그 삶을 보살피려는 마음.

예 굶주린 백성의 살림을 보살피고자 한다.

강호한정 시10-07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정취.

예 강가 정자에서 한가롭게 경치를 즐긴다.

유유자적 시10-08

여유롭고 자유롭게 지내는 삶의 태도.

예 쫓기는 마음 없이 여유롭게 길을 걷는다.

안빈낙도 시10-09

가난한 형편에도 도를 지키며 즐겁게 사는 태도.

예 거친 보리밥 한 그릇을 먹어도 옛 성현의 글을 읽는 이 저녁이 즐겁구나.

물아일체 시10-11

자신과 자연·대상의 구별이 사라진 듯 하나가 되는 경지.

예 강물에 마음이 스며들어 나와 강의 경계가 없는 듯하다.

풍류 시10-13

자연·예술을 가까이하며 멋과 여유를 즐기는 일.

예 강바람을 맞으며 시를 읊고 음악을 즐긴다.

찬양·예찬 시10-15

대상의 훌륭함이나 아름다움을 높이 기리는 것.

예 험한 길을 밝힌 그 뜻이 고귀하다고 기린다.

▶ 시02-08

안분지족 시10-10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태도.

예 작은 밭 하나면 내게 넉넉하니, 남의 큰 집이 부럽지 않다.

연하고질·천석고황 시10-12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고치기 어려운 병에 비길 정도라는 뜻.

예 산수를 사랑함이 고칠 수 없는 병처럼 깊다.

탄로 시10-14

늪에 감을 한탄하는 것.

예 거울 속 백발을 보고 늪음을 한탄한다.

소재보다 상황을 먼저 판단하기

속세와의 단절·미련 시10-16

자연을 지향하며 명예·이익을 떠나려 하거나, 떠난 뒤에도 현실 정치 등을 잊지 못하는 마음.

예 산에 들었으나 궁궐 소식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전란의 비애 시10-18

전쟁으로 삶이 무너진 상황에 대한 슬픔과 탄식.

예 전쟁으로 불탄 마을을 보며 운다.

수탈 고발 시10-20

지배층의 착취·부당한 요구로 고통받는 삶을 드러내는 것.

예 곡식도 없는데 세금을 더 내라며 백성을 괴롭힌다.

현실적 전원생활·삶의 현장 시10-17

자연을 노동·생계의 공간으로 제시하는 것.

예 논에서 김을 매며 한 해 먹을거리를 걱정한다.

! 자연 감상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정치 현실의 비판 시10-19

혼란한 정국, 간신, 배척·유배 등의 상황을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것.

예 간신이 충언을 막는 현실을 꾸짖는다.

삶의 애환 시10-21

가난·노동·관계의 억압 등 일상에서 겪는 슬픔과 기쁨.

예 고된 하루 끝에 가족과 웃다가 내일의 품삯을 걱정한다.

연정 시10-22

임을 사랑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임과 오래 함께하기를 바란다.

❗ 만남·기다림·사랑의 지속에 대한 소망 등으로 드러난다.

이별의 정한 시10-23

이별에서 생기는 슬픔·그리움·원망·한.

예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는다.

❗ 그리움이 곧 원망은 아니므로 어조를 확인한다.

고어 읽기의 기본

연철·이어 적기 시10-24

받침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표기.

신호 앞말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적힘

예 ‘바람매’를 ‘바람+애’로 나누어 ‘바람애’로 읽는다.

❗ 어절의 뜻과 문맥에 맞게 나누어 읽는다.

옛 음운·표기 시10-25

현대와 다른 옛 자모·표기를 현대어와 대응해 읽기.

예 ‘구름’의 뜻을 ‘강’과 연결한다.

❗ 모든 글자를 한 방식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옛 음운 규칙 시10-26

현대와 다르게 적용된 음운 규칙을 고려해 읽기.

예 옛말 ‘물’을 현대어 ‘물’과 연결한다.

❗ 구개음화·원순 모음화·전설 모음화·두음 법칙 등을 살핀다.

고어의 문장 관계 시10-27

주어·서술어와 어미·조사를 연결해 옛 문장의 뜻 읽기.

예 ‘임을 괴다’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임임을 읽는다.

❗ 익숙한 소리라도 옛 뜻을 확인한다.

고전 어휘를 문맥에 연결하기

기본 고어 시10-28

현대어와 다른 뜻까지 문맥으로 확인해야 하는 옛말.

예 ‘어리다’를 문맥에 따라 ‘어리석다’로 읽는다.

❗ 부록의 뜻을 문장 속 행동·상황과 맞춰 읽는다.

정사·계절 어휘 시10-29

마음이나 계절을 파악하게 하는 옛말·소재.

예 ‘삼풍’에서 겨울의 단서를 찾되 정서는 문맥으로 판단한다.

❗ 계절 단서만으로 정서를 단정하지 않는다.

어미·조사와 강조 표현 시10-30

문장 끝의 뜻과 말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요소.

예 ‘고저’에서 바라는 마음을 읽는다.

❗ 의문·감탄·소망·부정 등을 종결까지 읽어 판단한다. 같은 ‘하’도 정도 부사 ‘매우’인지 부름의 조사인지 문장 관계로 판단한다.

햇갈림

안빈낙도 vs 안분지족

가난 속 도의 즐거움 / 분수의 만족

● 가난과 도리 / 자기 몫에 만족

자연 vs 유유자적

소재 / 삶의 태도

✕ 자연이 생계의 공간이면 한가로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현대 소리 vs 옛 뜻

소리가 현대어와 같아도 뜻은 다를 수 있다

● 어리다: 어리석다; 여름: 열매

주의

! 자연을 즐기면서도 나라와 현실을 걱정할 수 있다. 겹치는 주제는 각각의 중심 근거로 판단한다.

! 백구·청산·강호·어옹은 자연 속 삶, 흥진·풍진·인세는 속세와 연결되기 쉽다. 해·북쪽·궁궐은 임금·조정을, 눈·서리는 시련을 암시할 수 있으나 모두 문맥과 보기의 근거로 판단한다.

고어 읽기 단서

읽기 단서	풀이
아래아	위치와 단어에 따라 현대의 ‘아·으’ 등에 대응한다.
구개음화가 안 된 꿀	‘도타’ 등을 현대어 ‘좋다’와 연결해 읽는다.
원순 모음화가 안 된 꿀	‘믈’을 ‘물’과 연결한다.
전설 모음화가 안 된 꿀	‘즘생’을 ‘짐승’과 연결하여 읽는다.
두음 법칙이 안 된 꿀	어두의 ‘녀-’가 현대어 ‘여-’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단, ‘녀다(가다)’를 ‘여다’로 바꾸지 않는다.

주의

! 옛 표기를 익숙한 현대 모음으로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먼저 볼 고어

옛말	뜻
가없다	끝이 없다
녀다	가다; 지나다·살아가다
괴다	사랑하다
어리다	어리석다
여름	열매
어엿브다	불쌍하다

계절을 읽는 단서

어휘	뜻·단서
도화	복사꽃: 봄의 단서
행화	살구꽃: 봄의 단서
두견화	진달래꽃: 봄의 단서
이화	배꽃: 봄의 단서
녹양	푸른 버들: 봄의 단서
세우	가는 비: 봄의 단서

옛말	뜻
듣다	떨어지다
수이	쉽게
하	매우
하	대상을 부르는 조사
후마	이미·벌써

▶ 전체 어휘는 고전 어휘 사전

어휘	뜻·단서
동풍	동쪽 바람; 문맥에서 봄바람
하운	여름 구름: 여름의 단서
녹음	짙은 나무 그늘: 여름의 단서
실솔	귀뚜라미: 가을의 단서
황운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할 때 가을의 단서
금수	곱게 물든 산천: 문맥에서 가을의 단서
백설	흰 눈: 겨울의 단서
삭풍	매서운 북풍: 겨울의 단서
은산	눈 덮인 산: 겨울의 단서

문장 끝과 관계의 단서

옛 표기	대응·기능	주의
하	매우	정도 부사; 부름의 조사 ‘하’와 구별
-르샤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르셔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ㄴ더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녀	의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다시 판단
-뇨	의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다시 판단
-ㄴ다	의문	현대 평서형 -ㄴ다와 구별
-잇가	높임 의문	상대를 높임
-잇고	높임 의문	상대를 높임
-고저	바람	소망·희망
-고자	바람	소망·희망
-르세라	염려	문맥에서 염려를 확인
-르시	-므로	아래아와 ㅣ가 결합한 옛 모음; -르씨와 연결
-르씨	-므로	아래아와 ㅣ가 결합한 옛 모음; -르시와 연결
도곤	보다	누구·무엇과 비교하는지 확인
라와	보다	누구·무엇과 비교하는지 확인
두려	에게	문장 관계로 판단
손되	에게	문장 관계로 판단
의	에	현대 관형격 ‘의’만으로 해석하지 않음

옛 표기	대응·기능	주의
희	에	앞말과의 관계 확인
애	에	앞말과의 관계 확인
에	에	앞말과의 관계 확인
예	에	앞말과의 관계 확인
우희	전에·위에	앞말이 시간인지 공간·사물인지 확인
다히	쪽	문장 관계로 판단
쿠니와	물론이거니와	문맥에 맞춰 연결
하	이시여	정도 부사 ‘하(매우)’와 구별
-곰	강조	풀이에서 앞말을 되풀이해 강세를 살릴 수 있음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재산은 넉넉하지 않으나, 지켜 온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소박한 밥상을 즐긴다.

시10-Q01 안빈낙도·풍수지탄 중 알맞은 것을 고르자.

한낮의 밭에서 땀을 닦는 화자가 저녁에 먹을 곡식을 걱정한다.

시10-Q02 자연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유유자적인 삶을 노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O / X

옛글에서 ‘어엿브다’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는 대목에 쓰였다.

시10-Q03 이 문맥에서는 ‘예쁘다’와 ‘불쌍하다’ 중 어느 뜻인가?

(가) 사람도 하다.

(나) 아소 님하.

시10-Q04 (가)의 ‘하다’는 ‘행동하다·많다’ 중 무엇인가? (나)의 ‘하’는 정도·부름 중 무엇인가?

2부 소설

인물

성격·심리·태도와
선택

사건

목표·장애·갈등과
변화

배경

인물이 행동하는
환경과 조건

서술자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 실제
작가와 구별한다.
▶ 소설05-02

전달 방식

구성·시점·문체가
드러내는 의미

소설은 상상으로 인물과 사건을 구성하여 삶을 드러낸다. ▶ 소설01-16

2부 소설

소설01

인물과 심리·태도

핵심 질문 누가 무엇을 원하며, 말과 행동은 어떤 성격을 보여 주는가?

한눈에

역할

중심인물·주요 인물 소설01-01

주동 인물 소설01-03

주변 인물·보조 인물 소설01-02

반동 인물 소설01-04

대표성과 고유성

전형적 인물 소설01-05

개성적 인물 소설01-06

성격 변화

평면적 인물 소설01-07

입체적 인물 소설01-08

가치 평가

긍정적·부정적 인물 소설01-09

제시 방식

직접 제시·말하기 소설01-10

간접 제시·보여 주기 소설01-11

! 근거가 없는 축까지 억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형성과 개성도 함께 드러낼 수 있다. 한 인물은 중심인물이면서 전형적이고 평면적일 수 있다.

소설은 어떤 이야기인가?

소설의 허구성 소설01-16

상상으로 인물·사건을 구성하여 삶을 드러내는 성격.

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꾸며 이야기한다.

❗ 실제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 꾸며
낸 이야기라는 뜻이 곧 삶의 진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인물 유형

중심인물·주요 인물 소설01-01

사건과 갈등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예 이야기가 은서의 선택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 주인공이나 그에 준하는 인물이다.

주변 인물·보조 인물 소설01-02

중심인물을 돕거나 부각하고 사건 진행에 관여하는 인물.

예 친구가 주인공을 도와 단서를 찾아 준다.

주동 인물 소설01-03

주요 사건을 이끌며 목표를 이루려 하는 인물.

예 주인공이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 사건을 이끈다.

❗ 반드시 선한 인물은 아니다.

반동 인물 소설01-04

주동 인물과 대립하며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예 범인이 진실을 찾는 주인공을 방해한다.

❗ 반드시 악인은 아니다.

전형적 인물 소설01-05

특정 계층·집단·시대 등에 공통적인 특징을 대표하는 인물.

예 인물이 당대 탐관오리의 공통된 탐욕을 대표한다.

개성적 인물 소설01-06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인물.

예 큰일 앞에서도 늘 손가락으로 리듬을 세는 독특한 습관을 보인다.

평면적 인물 소설01-07

사건이 진행되어도 핵심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인물.

예 여러 시련 뒤에도 끝까지 정직한 성격을 지킨다.

입체적 인물 소설01-08

사건과 경험을 통해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인물.

예 복수만 바라던 인물이 경험 뒤 용서를 택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긍정적·부정적 인물 소설01-09

작품이 드러내는 가치에 비추어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인물.

예 작품이 착취를 일삼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 주동·반동이라는 역할 분류와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인물의 제시와 마음 읽기

직접 제시·말하기 소설01-10

서술자가 성격·심리 등을 직접 설명함.

신호 서술자가 성격·심리에 직접 이름을 붙여 설명함

예 그는 남의 사정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 분석적·요약적 제시라고도 한다. ‘요약적 제시’는 여기서는 성격·심리를 직접 정리해 설명한다는 뜻이다. 사건 시간을 압축하는 용법과 구별한다.

▶ 소설06-02

간접 제시·보여 주기 소설01-11

말·행동·외양·주변 인물의 반응 등을 통해 독자가 성격·심리를 짐작하게 함.

신호 말·행동·외양을 제시하고 성격을 독자가 짐작하게 함

예 그는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고 제 옷의 먼지는 나중에 털었다.

❗ 극적·장면적 제시라고도 한다. ‘장면적 제시’는 인물 제시에서는 말·행동으로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뜻, 사건 제시에서는 순간을 펼쳐 보이는 뜻으로 쓴다.

▶ 소설06-21

심리 소설01-12

상황 속에서 인물이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

예 실수를 들킬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 무표정하다는 말만으로 감정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시02

태도 소설01-13

상황이나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자세.

예 문제가 생기자 도망치지 않고 해결에 나섰다.

❗ 거부·수용·회피·적극적 해결 등을 행동과 연결해 판단한다.

▶ 시02-02

인물의 익명성 소설01-14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시 방식.

예 서로를 이름 대신 ‘칠 번’, ‘팔 번’으로만 부른다.

❗ 개인성의 약화·소통의 단절 등을 드러낼 수 있으나 실제 기능은 문맥으로 확인한다.

특성을 드러내는 인물 이름 소설01-15

이름에 성격·의식·사회적 특징을 담아 인물을 부각하는 방식.

예 인색한 인물을 ‘노구두’라 부르며 이름과 행동을 연결한다.

❗ 이름과 행동의 관계를 확인한다.

헛갈림

성격 vs 심리

지속적인 특성 / 상황 속 마음

❌ 순간 화가 났다고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다

평면적 인물 vs 평면적 구성

성격이 유지됨 / 시간 순서대로 서술됨

⊙ 인물의 변화와 사건 배열은 별도 판단

직접 제시 vs 시점

인물 정보의 전달 방법 / 서술 위치·정보 범위

❌ 성격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지적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의

! 인물의 말이 곧 사실은 아니다. 말과 속마음이 다르거나 행동이 말과 어긋날 수 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민호는 자기 이익만 따랐다. 친구를 잃는 일을 겪은 뒤, 남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소설01-Q01 평면적·입체적 중 어느 유형의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소설01-Q02 주동 인물은 반드시 선하고 반동 인물은 반드시 악하다. O / X

(가) 수진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나) 수진은 비가 쏟아져도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소설01-Q03 (가)와 (나)를 직접 제시·간접 제시에 연결하자.

핵심 질문 무엇이 충돌하며, 어떤 선택이 다음 사건을 만드는가?

한눈에

갈등의 종류

갈등 소설02-02

내적 갈등 소설02-03

외적 갈등: 인물 밖의 요소와 충돌

인물과 인물의 갈등 소설02-04

인물과 사회의 갈등 소설02-05

인물과 자연의 갈등 소설02-06

인물과 운명의 갈등 소설02-07

갈등의 변화

갈등의 심화 소설02-08 ↔

갈등의 해소 소설02-09

긴장 소설02-10 ↔ 이완 소설02-11

사건이 이어지는 방식

개연성 소설04-09

일어날 법함

필연성 소설08-06

조건상 반드시 이어짐

우연성 소설08-04

뜻밖의 만남·상황이 연결을 이끔

갈등의 유형

사건 소설02-01

인물이 겪거나 일으키는 일.

예 주인공이 분실물을 주워 주인을 찾아 나선다.

❗ 앞뒤 사건의 원인·결과와 인물의 선택을 함께 읽는다.

갈등 소설02-02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욕구·가치·힘 등이 충돌하는 것.

예 한 사람은 숲을 지키려 하고 다른 사람은 베려 한다.

내적 갈등 소설02-03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욕구·가치·판단이 맞서는 갈등.

예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친구를 잃을까 두렵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 소설02-04

서로 다른 목표나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대립하는 외적 갈등.

예 누나는 집을 팔자고 하고 동생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맞선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 소설02-05

인물이 제도·관습·신분 질서·사회적 억압 등과 맞서는 외적 갈등.

예 인물이 차별하는 관습을 거부하며 싸운다.

인물과 자연의 갈등 소설02-06

인물이 자연환경·재해 등과 맞서는 외적 갈등.

예 어부가 거센 파도에 맞서 배를 지키려 한다.

인물과 운명의 갈등 소설02-07

인물이 피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운명적 조건과 맞서는 외적 갈등.

예 예언된 죽음을 피하려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 한다.

갈등이 사건을 움직이는 방식

갈등의 심화 소설02-08

대립이 더 뚜렷해지거나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것.

예 오해가 쌓여 서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갈등의 해소 소설02-09

대립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타협·선택 등으로 충돌이 풀리는 것.

예 땅의 경계를 두고 다투던 두 사람은 잘못 그린 지도를 바로잡고 서로의 몫을 인정하며 악수했다.

❗ 일시적 중단과 구별한다.

긴장 소설02-10

갈등·위험·불확실성으로 사건의 향방에 대한 불안과 집중이 커지는 상태.

예 발각될 위기에 놓여 다음 순간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다.

이완 소설02-11

갈등·위험이 줄거나 사건의 흐름이 느슨해져 긴장이 낮아지는 상태.

예 위험에서 벗어난 뒤 숨을 돌리며 불안이 줄어든다.

사건이 이어지는 방식

개연성 소설04-09

작품 안의 조건과 인과 관계에 비추어 그 일이 일어날 법하다고 느끼게 하는 성질.

예 오랫동안 길을 익힌 안내자가 일행을 이끄는 일이 작품의 조건상 그럴듯하다.

필연성 소설08-06

앞선 조건과 인과 관계에 비추어 그 결과가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성질.

예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다른 길도 없어 그 안에 남을 수밖에 없다.

우연성 소설08-04

우연한 만남·상황이 사건을 진행시키는 성격.

예 아무 약속 없이 먼 고을에서 뜻밖에 은인을 만난다.

❗ 인과적 필연성이 약한 연결에 주목한다.

헛갈림

갈등 해소 vs 중단

대립 원인이 풀림 / 다툼이 잠시 멈춤

❌ 조용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결은 아니다

개연성 vs 필연성 vs 우연성

그럴듯함 / 조건상 반드시 / 뜻밖의 연결

🕒 우연한 만남도 맥락에 따라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주의

! 힘들다는 표현만으로 갈등을 판정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이 맞는지 찾는다. 한 사건에 내적·외적 갈등이 함께 있을 수 있다.

! 갈등은 성격·가치관을 드러내고 사건을 이어 주며 주제를 형성한다. 모든 소설에 뚜렷한 외적 갈등이나 완전한 해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규정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 지우는 부당한 규정을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족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계속 나설지 물러설지 망설였다.

소설02-Q01 제시된 외적 갈등의 유형과 내적 갈등에서 맞서는 두 마음을 쓰자.

두 사람은 다투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말을 멈췄다. 손님이 돌아가면 다시 따지겠다고 각자 생각했다.

소설02-Q02 말다툼이 멈췄으므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O / X

핵심 질문 실제로 일어난 순서와 독자에게 들려주는 순서는 같은가?

한눈에

전개 기능

발단 소설03-02 → 전개 소설03-03 → 위기 소설03-04 → 절정 소설03-05 →
결말 소설03-06

! 작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 배열

사건 순서 소설03-10 서술 순서 소설03-11

두 순서가 같다

순행적 구성·평면적 구성
소설03-12

두 순서가 다르다

역순행적 구성·역전적 구성
소설03-13

이야기를 결합하는 방식



액자 구성
소설03-17

안팎

병렬식 구성
소설03-18

나란한 흐름



피카레스크식 구성
소설03-19

같은 인물의 삽화들

주제

옴니버스식 구성
소설03-20

공통 주제 아래 여러 이야기

구성과 전개 단계

구성·플롯 소설03-01

사건을 인과 관계와 표현 의도에 따라 선택하고 배열한 짜임.

예 결과를 먼저 보여 주고 원인을 뒤에서 밝히도록 사건을 배열한다.

발단 소설03-02

인물·배경·상황을 제시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부분.

예 새로 이사 온 인물과 낯선 마을의 형편을 소개한다.

전개 소설03-03

사건이 이어지며 갈등이 본격화되는 부분.

예 분실 사건 뒤 서로를 의심하며 다툼이 본격화된다.

위기 소설03-04

갈등이 심화되어 중요한 선택이나 전환을 앞두는 부분.

예 증거가 사라져 돌아가기가 어려운 선택을 앞둔다.

절정 소설03-05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러 사건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예 맞선 인물들이 대면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승패가 결정된다.

복선 소설03-07

뒤에 나타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거나 준비하는 단서.

신호 앞의 작은 단서가 뒤의 사건과 연결됨

예 앞서 금 간 다리를 보여 주고 뒤에서 그 다리가 무너진다.

❗ 단순한 배경 정보와 구별한다.

결말 소설03-06

사건을 마무리하며 갈등의 결과나 인물의 이후 상태를 드러내는 부분.

예 화해 뒤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 준다.

서두의 제시 방식 소설03-08

대화·묘사·독백·요약 등으로 이야기를 여는 방식.

예 ‘누가 창문을 열었지?’라는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 인물 관계·분위기·심리·사건 개요 중 무엇을 먼저 드러내는지 본다.

결말과 여운 소설03-09

사건을 닫는 방식과 독자에게 남기는 생각.

예 편지를 뜯기 직전에 끝내 인물의 선택을 독자가 생각하게 한다.

❗ 이후 상태를 밝히거나 독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 갈등의 해결 여부와 여운은 따로 살핀다.

시간 순서와 서술 순서

사건 순서 소설03-10

이야기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간의 순서.

예 입학이 먼저이고 졸업이 나중이다.

서술 순서 소설03-11

작품이 독자에게 사건을 제시하는 순서.

예 작품은 졸업식부터 보여 준 뒤 입학식으로 돌아간다.

순행적 구성·평면적 구성 소설03-12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제시하는 구성.

예 출생·성장·노년을 시간 순으로 들려준다.

역순행적 구성·역전적 구성 소설03-13

시간 순서를 바꾸어 현재와 과거 등을 교차하거나 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구성.

예 노년에서 시작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

❗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시간을 뒤바꾸면 원인을 뒤늦게 밝히거나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며 궁금증을 만들 수 있다. 과거 시제만으로 회상·역순행을 판정하지 않는다.

회상 소설03-14

과거의 일을 떠올리거나 되돌아가 제시하는 것.

신호 현재 장면에서 지난 사건으로 되돌아감

예 고향역을 본 인물이 **어릴 적 이별 장면을 떠올린다.**

❗ 단순한 과거 언급인지 과거 사건의 본격적인 재현인지 구별한다.

이야기를 결합하는 방식

단일 구성 소설03-15

하나의 중심 사건이나 줄거리를 중심으로 짠 구성.

예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짠다.

복합 구성 소설03-16

둘 이상의 사건·줄거리를 연결하여 짠 구성.

예 반지 찾기와 가족의 화해라는 두 줄거리를 엮는다.

액자 구성 소설03-17

바깥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는 구성.

신호 이야기를 듣는 바깥 장면과 그 안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예 기자가 만난 인물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안쪽 이야기가 끝나면 기자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 바깥 이야기는 안쪽 이야기의 전달 경위나 의미를 마련하기도 한다.

병렬식 구성 소설03-18

둘 이상의 독립적인 이야기 흐름을 나란히 배치하는 구성.

예 도시의 형 이야기와 시골의 동생 이야기를 나란히 펼친다.

❗ 인물·사건의 공통점과 차이를 부각할 수 있다. 나란히 배치된 이야기들이 반드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소설03-19

동일한 중심인물을 축으로 독립성이 큰 여러 삽화를 이어 놓는 구성.

예 같은 떠돌이가 각 마을에서 겪는 독립적인 일들을 잇는다.

옵니버스식 구성 소설03-20

인물·시공간 등이 서로 다른 여러 이야기를 공통된 주제나 틀 아래 묶는 구성.

예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돌봄’이라는 주제로 묶는다.

헛갈림

평면적 구성 vs 평면적 인물

시간 순서 / 성격 변화

● 순행 구성에서도 인물은 변할 수 있다

역순행 vs 액자

시간 배열 / 이야기의 안팎

✗ 회상만으로 액자 구성이 되지 않는다

병렬 vs 음니버스 vs 피카레스크

나란한 흐름 / 공통 주제의 여러 이야기 / 동일 인물의 삽화들

● 배열 방식과 묶는 기준이 달라 서로 겹칠 수 있다

주의

! 다섯 단계는 분석의 기본 틀이다. 모든 소설이 같은 비중·순서로 다섯 단계를 갖추거나 결말에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초반에 문고리가 헐거워졌다는 설명이 나온다. 뒤에서 잠긴 방의 문고리가 빠져 주인공이 탈출한다.

소설03-Q01 초반의 험거운 문고리는 뒤 사건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사건이 일어난 순서: ① 약속 → ② 오해 → ③ 이별

작품이 들려준 순서: ③ 이별 → ① 약속 → ② 오해

소설03-Q02 이 작품의 서술 순서는 순행적인가, 역순행적인가?

산장에 도착한 ‘나’가 노인에게 마을의 옛일을 듣는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산장을 떠난다.

소설03-Q03 바깥 이야기와 안쪽 이야기를 각각 쓰고 구성 이름을 말하자.

핵심 질문 어디서 어떤 조건 아래 사건이 일어나며, 반복되는 대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눈에

배경 소설04-01

시간적 배경 소설04-02

사회적 배경 소설04-05

심리적 배경 소설04-06

공간적 배경 소설04-03

상황적 배경 소설04-07

자연적 배경 소설04-04

! 종류들은 겹칠 수 있다.

분위기 소설04-08

장면의 전체 느낌

소재 소설04-10 의 기능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 소설04-11

사건을 매개하는 소재 소설04-12

갈등에 관여하는 소재 소설04-13

주제를 드러내는 소재 소설04-14

! 개연성(소설04-09)은 소설02에서 비교한다.

배경의 종류와 기능

배경 소설04-01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 환경과 조건.

예 인물이 **가뭄이 계속되는 농촌에서** 살아간다.

시간적 배경 소설04-02

시대·연도·계절·하루 중 시각 등 시간의 조건.

예 이야기가 **겨울 새벽에** 시작된다.

공간적 배경 소설04-03

나라·지역·마을·방·길 등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예 두 사람이 **기차역 대합실에서** 만난다.

자연적 배경 소설04-04

계절·날씨·지형 등의 자연환경.

예 **오랜 가뭄과 메마른 논**이 인물의 행동을 제한한다.

!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겹친다.

사회적 배경 소설04-05

제도·관습·계층·역사·문화 등 인물의 삶을 둘러싼 사회 조건.

예 엄격한 신분 제도가 두 사람의 만남을 막는다.

상황적 배경 소설04-07

당장 인물이 처한 사정과 사건의 조건에 초점을 둔 배경.

예 인물은 오늘 안에 빚을 갚아야 할 처지다.

심리적 배경 소설04-06

인물의 말과 행동을 낚는 내면의 상황과 의식 세계에 초점을 둔 배경.

예 실패의 기억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는 내면이 행동의 바탕이 된다.

분위기 소설04-08

배경·사건·표현이 만들어 내는 전체적인 느낌.

예 텅 빈 집과 멎은 시계가 쓸쓸한 느낌을 만든다.

❗ 인물의 감정과 일치하거나 대비될 수 있다.

소재의 기능

소재 소설04-10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대상이나 재료.

예 낡은 운동화가 여러 사건에 등장한다.

❗ 그 대상이 사건 속에서 하는 일을 확인한다.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 소설04-11

인물의 기억·감정·욕망을 드러내거나 불러오는 대상.

예 깨진 시계가 아버지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을 매개하는 소재 소설04-12

인물의 만남이나 다음 사건을 이어 주는 대상.

예 주운 지갑을 돌려주러 가며 두 인물이 만난다.

갈등에 관여하는 소재 소설04-13

대립을 일으키거나 심화하고, 또는 해결의 계기가 되는 대상.

예 공동 소유의 땅을 두고 형제가 다툰다.

주제를 드러내는 소재 소설04-14

반복·대비·상징 등을 통해 작품의 중심 의미를 구체화하는 대상.

예 서로 이어 붙인 조각보가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헛갈림

배경 vs 분위기

사건의 조건 / 장면의 전체 느낌

● 비 내리는 거리 / 쓸쓸함

소재 vs 상징

작품의 재료 / 다른 뜻을 드러내는 기능

✗ 자주 등장한다고 반드시 상징은 아니다

주의

! 배경은 인물·갈등을 이해하게 하고 분위기를 만들며 주제와 현장감을 드러낸다.

! 같은 소재가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소재가 변하는 과정도 살핀다. 뒤의 사건을 준비하는 기능은 소설03-07 복선과 연결한다.

폭설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마을 창고의 식량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소설04-Q01 폭설과 막힌 길이 만든 조건은? ①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 ②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오해를 품고 헤어졌던 두 사람은 오래된 편지를 읽고 사실을 알게 되어 서로 사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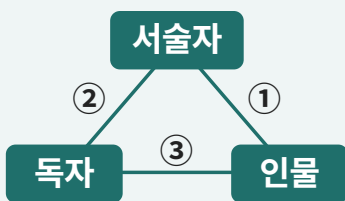
소설04-Q02 편지는 이 장면에서 갈등 유발·갈등 해소 중 어디에 관여하는가?

핵심 질문 누가 말하고, 누구의 눈으로 보며, 어디까지 아는가?

한눈에

기본 시점 위치·정보 범위	제한적 서술 소설05-08	초점 소설05-09	신뢰성 소설05-10	거리 소설05-11~13	개입·논평 소설05-14~15
	중심 대상·정보				
이야기 안	자신의 일이 중심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05-04			
	다른 중심인물을 관찰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05-05			
이야기 밖	내면·숨은 정보까지 접근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05-06			
	겉으로 관찰 가능한 말·행동 중심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05-07			

! 제한적 서술·초점·신뢰성·거리는 기본 시점과 따로 살피는 기준이다. 개입·논평은 서술자의 견해·평가가 드러나는가로 판단한다.



거리 — 세 쌍의 가까움

- ①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소설05-11
- ②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소설05-12
- ③ 독자와 인물의 거리 소설05-13

서술자의 위치와 정보 범위

작가 소설05-01

소설을 창작한 실제 사람.

! 작품 안에서 말하는 서술자와 구별한다.

서술자 소설05-02

작품에서 인물과 사건을 독자에게 전하는 목소리.

예 '나는 그해 마을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

! 등장인물일 수도, 이야기 밖의 존재일 수도 있다.

시점 소설05-03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전달하는 위치와 방식.

❗ 위치와 정보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05-04

이야기 안의 중심인물인 ‘나’가 자신의 일을 전함.

신호 대사가 아닌 서술에서 ‘나’가 중심 사건을 전함

예 중심인물인 내가 내가 겪은 모험과 생각을 들려준다.

❗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관찰·추측·전해 들은 말로 알 수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05-05

이야기 안의 ‘나’가 주로 다른 중심인물의 일을 관찰하여 전함.

신호 대사가 아닌 서술의 ‘나’가 다른 중심인물을 관찰함

예 마을 주민인 내가 대장장이의 삶을 지켜보며 들려준다.

❗ ‘나’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인공 시점이라 하지 않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05-06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이나 드러나지 않은 일까지 전할 수 있는 시점.

예 이야기 밖에서 두 인물이 서로 감춘 생각까지 들려준다.

❗ 명칭의 ‘작가’가 실제 작가라는 뜻은 아니다. 모든 문장에 모든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05-07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겉으로 관찰 가능한 말·행동·모습을 중심으로 전하는 시점.

예 이야기 밖에서 닫힌 입술과 흔들리는 손만 보여 주고 내면은 설명하지 않는다.

초점과 신뢰성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05-08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인식·내면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한하여 전하는 방식.

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하린이 아는 일과 마음에 한정해 들려준다.

❗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는 별칭도 쓴다. 인물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 인물이 서술자인 것은 아니다.

초점 인물·초점 화자 소설05-09

사건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중심이 되는 인물.

예 서술자는 밖에 있지만 하린이 듣고 본 장면을 중심으로 전한다.

❗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소설05-10

지식·판단·가치관의 한계 등으로 서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서술자.

예 자기 실수를 늘 남 탓으로 돌리는 ‘나’의 판단과 실제 행동이 어긋난다.

❗ 고의로 거짓말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거리와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소설05-11

서술자의 내면 접근 정도와 인물을 대하는 태도.

예 속마음을 자세히 전하면서도 **그** 탐욕을 비판한다. — 앞과 태도는 별개.

❗ 속마음을 얼마나 아는가와 얼마나 감싸 보는가는 따로 본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소설05-12

독자가 서술자의 정보·판단을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는가의 문제.

예 독자는 ‘나’의 자량과 행동을 비교해 **그** 평가를 믿지 않게 된다.

독자와 인물의 거리 소설05-13

독자가 인물의 처지·내면에 얼마나 직접 접근하고 공감하는가의 문제.

예 인물의 사정을 알게 된 독자가 **그** 선택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 장면 제시·정보 제한·평가 등이 관여한다.

서술자의 개입 소설05-14

서술자가 사건 전달에 자신의 생각·견해·감정 등을 직접 드러내는 것.

예 사건 도중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직접 덧붙인다.

편집자적 논평 소설05-15

서술자가 인물·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명시하는 것.

신호 비열하다·훌륭하다 등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남

예 ‘그토록 작은 이익에 친구를 버리니 참으로 비열한 일이었다.’

❗ 서술자의 개입 가운데 평가가 두드러지는 경우이다.

헛갈림

서술자 vs 초점 인물

누가 전하는가 /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 바깥 서술자가 한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앞 vs 태도

속마음을 아는가 / 호의적으로 보는가

✕ 내면을 안다고 반드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 서술 vs 논평

인물의 마음 / 서술자의 평가

⊙ 두려움 설명 / 행동을 비열하다고 평가

주의

- ! 1인칭인지는 인물의 대사 속 ‘나’가 아니라 서술 문장으로 확인한다. ‘그’라는 말만으로 관찰자 시점을 판정하지 않으며, 짧은 발체문만으로 작품 전체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 서술의 거리는 실제 공간의 길이가 아니다. ‘1인칭이면 언제나 가깝다’는 공식 대신 누가 누구와 어떤 점에서 가까운지 밝힌다.
- ! 직접 설명은 내면을 이해하게 할 수 있고, 장면 제시는 독자가 인물을 바로 만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실제 내용과 제시 방식으로 거리의 효과를 판단한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1쪽

준호는 창밖을 보았다. 그는 친구가 끝내 오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소설05-Q01 이 부분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정보 범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가) 유진은 문틈으로 거실을 보았다. 삼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유진은 알 수 없었다.
- (나) 아버지는 해고 통지서를 내려놓으며 “내일부터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날마다 집에서 나와 놀아 줄 테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설05-Q02 (가)는 누구의 눈으로 본 장면인가? 그 인물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소설05-Q03 (나)의 ‘나’는 아버지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했는가? 아버지의 말과 ‘나’의 판단을 비교하자.

- (가) 그는 동생이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웠다.
- (나) 어려운 동생을 외면하다니, 이보다 무책임한 형이 어디 있겠는가.

소설05-Q04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은 (가)와 (나) 중 무엇인가?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소설05-Q05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안다면 반드시 그 인물을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O / X

핵심 질문 같은 사건을 어떻게 들려주어 어떤 효과를 만드는가?

한눈에

시간을 다루는 방식

요약적 제시 소설06-02

장면적 제시 소설06-21

묘사 소설06-03

대화 소설06-04

시간 압축

순간을 펼침

◀ 빠르게 지나감

천천히 펼침 ▶

! 실제 속도 효과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문체

구어체 소설06-07



문어체 소설06-08

간결체 소설06-09



만연체 소설06-10

운문체 소설06-11

웃음과 평가

풍자 소설06-16

해학 소설06-17

희화화 소설06-18

냉소적 어조 소설06-19

반어적 어조 소설06-20

서술·묘사· 대화와 의식의 흐름

서술 소설06-01

좁게는 서술자가 인물·사건·배경을 설명하며 전달하는 방식.

예 그는 아침에 길을 떠나 저녁 무렵 마을에 도착했다.

! 넓게는 이야기를 전하는 행위 전체를 가리킨다.

요약적 제시 소설06-02

긴 시간의 사건이나 상황을 압축해 짧게 전달하는 방식.

신호 몇 해 동안 등 긴 시간이 짧게 정리됨

예 몇 해 동안 그는 여러 직업을 거쳐 자리를 잡았다.

! 정보 전달과 진행 속도 조절에 쓰인다. ‘요약적 제시’는 여기서는 사건의 시간 압축에 초점을 둔다. 인물 제시에서는 성격·심리를 직접 설명한다는 뜻으로도 쓴다.

▶ 소설01-10 · 소설06-21

장면적 제시 소설06-21

말·행동·세부 묘사로 장면을 펼쳐 보여 주는 방식.

예 그가 잔을 들었다. 손끝이 떨어 물 한 방울이 탁자에 떨어졌다.

!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용법과도 연결된다. 요약과 달리 순간의 진행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다.

묘사 소설06-03

인물·사물·장면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구체적으로 그리는 방식.

예 창이 물방울이 길게 늘어져 은빛 줄을 그었다.

대화 소설06-04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제시하는 방식.

예 ‘같이 갈래?’ / ‘먼저 가. 난 기다릴게.’

! 성격·관계·갈등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의식의 흐름 소설06-05

인물의 생각·감정·감각이 연상에 따라 이어지는 흐름을 드러내는 기법.

신호 감각·기억·생각이 연상을 따라 이어짐

예 빗소리. 그날도 비였지. 젖은 구두, 아버지의 등, 또 문소리인가.

! 모든 심리 설명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문체와 어조의 효과

문체 소설06-06

어휘·문장·리듬 등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특색.

구어체 소설06-07

일상에서 말하는 듯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문체.

예 ‘그럴 줄 알았지. 어찌됐어.’ 하고 들려주는 듯 쓴다.

문어체 소설06-08

글에 주로 쓰는 격식과 표현이 두드러지는 문체.

예 그리하여 그는 귀환을 결심하였다.

간결체 소설06-09

문장을 짧고 간명하게 써서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는 문체.

예 해가 졌다. 배가 똥았다.

만연체 소설06-10

수식과 절 등을 길게 이어 문장을 펼치는 문체.

예 언덕을 돌아 마을로 이어지는 길 위에 길게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따라 그는 걸었다.

운문체 소설06-11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가락과 반복이 두드러지는 문체.

예 가고 또 가니, 산이요, 넘고 또 넘으니, 강이라.

! 소설에도 나타날 수 있다.

방언 소설06-12

특정 지역 등에서 쓰는 말.

예 ‘어서 오이소’라는 말에서 지역 말투가 드러난다.

❗ 인물·지역의 특색과 현장감을 드러낼 수 있다.
방언이 나온다고 무조건 해학적인 것은 아니다. 인물·상황과 연결해 효과를 판단한다.

비속어 소설06-13

격이 낮거나 거친 느낌을 주는 말.

예 인물이 ‘이 자식아’라는 거친 말을 내뱉는다.

❗ 인물의 성격·관계·생활상을 드러낼 수 있다.

감각적·서정적 표현 소설06-14

감각을 생생히 하거나 정서와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

예 노을이 젖은 지붕에 번져, 그리운 저녁의 빛을 남겼다.

서술자의 어조 소설06-15

서술자의 말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태도.

예 서술자가 인물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야기를 전한다.

❗ 담담함·연민·냉소·풍자 등이 인물 평가와 분위기에 관여한다.

풍자·해학·희화화

풍자 소설06-16

대상의 모순·부정을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방식.

예 정직상을 주는 사람이 몰래 상금을 빼돌리다가 들킨다.

▶ 시02-29

해학 소설06-17

익살과 재미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예 노인이 제 모자를 보고 낯선 손님인 줄 알고 인사하여 온 가족이 웃는다.

❗ 인물에 대한 친근함이나 연민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시02-30

희화화 소설06-18

인물의 모습·행동·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표현.

예 뽀내던 인물이 큰 모자에 얼굴을 다 가리고 벽에 부딪힌다.

❗ 풍자와 해학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냉소적 어조 소설06-19

대상을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말투.

예 ‘그 잘난 계획도 결국 허풍에 지나지 않았다’며 차갑게 비웃는다.

❗ 모든 비판적 어조가 냉소적인 것은 아니다.

▶ 시02-27

반어적 어조 소설06-20

겉말과 반대되는 의도로 비꼬거나 뜻을 강조하는 말투.

예 약속을 어긴 인물에게 ‘참 믿음직한 사람이군’이라고 한다.

❗ 반어법의 판단 원칙은 시06과 같다.

▶ 시06-01

헛갈림

요약적 제시의 두 용법

인물의 직접 설명 / 사건 시간의 압축

● 성격을 정리함 / 여러 해를 한 문장에 전함

요약 vs 장면

시간·정보 압축 / 순간의 구체적 재현

● 여러 해를 압축함 / 묘사·대화로 한순간을 펼침.
속도는 문장 길이만이 아니라 내용과 배열로 판단한다

풍자 vs 해학 vs 희화화

비판 의도 / 익살 /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방법

● 비판 대상과 인물을 대하는 시선을 확인한다.
풍자와 해학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희화화는 양쪽에
쓰일 수 있다

주의

! 구어체와 간결체처럼 서로 다른 기준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2쪽

(가) 그는 그 마을에서 십 년을 지내며 집을 고쳤다.

(나)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손등의 떨림이 낡은 쇠에 전해졌다. 문 안쪽에서 가느다란 발소리가
떴었다.

소설06-Q01 긴 시간을 압축한 것은 (가)와 (나) 중 무엇인가?

소설06-Q02 ‘그는 슬펐다’라는 한 문장만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O / X

(가) 비가 왔다. 문을 닫았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 지붕을 따라 오래 흘러내리던 빗물이 문턱의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동안에도 그는 먼 길
끝을 바라보았다.

소설06-Q03 상대적으로 간결체에 가까운 것은 (가)와 (나) 중 무엇인가?

절약을 외치던 관리가 백성에게 거둔 돈으로 황금 손가락을 맞췄다. 그는 손가락이 너무 무거워
밥 한 술도 들지 못했다.

소설06-Q04 이 장면의 웃음이 비판하는 대상과 모순을 쓰자.

핵심 질문 작품의 어떤 근거를 어떤 관점으로 연결하여 의미를 읽는가?

한눈에



주제와 감상 관점

주제 소설07-01

작품 전체가 인물·사건·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중심 의미나 생각.

예 사건 전체가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 소재 이름만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절대론적·내재적 관점 소설07-02

작품 내부의 언어·구성·인물·갈등 등 관계에 초점을 두는 관점.

예 반복되는 소재와 결말의 관계로 뜻을 해석한다.

표현론적 관점 소설07-03

작가의 경험·가치관·창작 의도와 작품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관점.

예 확인된 작가의 이주 경험과 작품을 연결한다.

반영론적 관점 소설07-04

작품과 시대·사회·현실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관점.

예 산업화 당시의 노동 현실과 인물의 삶을 연결한다.

효용론적 관점 소설07-05

작품이 독자의 정서·인식·삶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관점.

예 작품을 읽은 뒤 독자가 타인의 처지를 새롭게 이해했다고 본다.

종합적 관점 소설07-06

작품 내부와 작가·현실·독자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관점.

예 표현을 살피면서 작가·시대·독자의 관계도 함께 고려한다.

작품의 변용

변용·재구성 소설07-07

기존 작품의 요소를 가져와 관점·형식·내용 등을 새롭게 바꾸어 구성하는 것.

예 옛이야기의 틀을 가져와 인물과 결말을 새롭게 바꾼다.

시점·관점의 변용 소설07-08

다른 인물이나 시각에서 사건을 보게 하여 정보와 평가를 달리하는 것.

예 영웅의 모험을 그를 기다린 가족의 눈으로 다시 들려준다.

인물·사건·결말의 변용 소설07-09

성격·선택·사건·결말을 바꾸어 갈등과 주제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

예 원작의 경쟁자가 새 작품에서는 협력자가 된다.

갈래·매체의 변용 소설07-10

소설을 희곡·영화 등으로 바꾸며 전달 수단과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것.

예 소설 속 내면 설명을 영화의 표정과 음향으로 바꾼다.

헛갈림

소재 vs 주제

무엇을 다루는가 / 무엇을 말하는가

● 가족 / 가족 사이의 이해와 화해의 가치

표현론 vs 효용론

작가와의 관계 / 독자에게 미친 영향

● 창작 경험 / 독자의 인식 변화

주의

! 제목·배경·소재·인물의 성격·선택·서술자의 태도·결말을 연결해 주제를 찾는다. 인물의 한마디를 작품 전체의 주장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작가 의도와 시대 배경도 확인된 정보로 연결한다.

! 원작과 바뀐 작품에서 유지된 점·달라진 점·새 효과를 나누어 본다. 매체가 바뀌면 서술자의 설명이 대사·행동·영상으로 바뀔 수 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2쪽

작품에서는 남의 도움을 거절하던 인물이 어려움을 겪고 서로 돕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독자는 이를 읽고 자신도 도움을 청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소설07-Q01 독자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둔 뒷문장은 어떤 감상 관점인가?

소설07-Q02 앞문장의 주제를 “도움”이라는 소재 이름보다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쓰자.

원작은 형이 동생의 행동을 오해하는 1인칭 이야기이다. 새 작품은 같은 사건을 동생의 시각으로 보여 주어, 형이 몰랐던 동생의 사정을 밝힌다.

소설07-Q03 사건이 같더라도 새로 얻는 정보와 인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O / X

핵심 질문 인물·사건·구성의 관습이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눈에

가치

권선징악 소설08-01

인과응보 소설08-02

사건 내용

전기성·비현실성 소설08-05

세계

천상



적강 소설08-11

지상

이원적 구성 소설08-10

꿈

바깥 틀

현실 → 꿈 → 현실

환몽 구성 소설08-09

꿈속 삶의 성격

몽자류 소설 소설08-23

몽유록계 소설 소설08-24

! 우연성·필연성(소설08-04·06)은 소설02에서 비교한다.

주제·인물·사건의 관습

권선징악 소설08-01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가치.

예 남을 돕던 인물은 보상받고 악행을 한 인물은 벌을 받는다.

! 인물의 보상·처벌과 연결된다.

인과응보 소설08-02

행동의 선악에 따라 그에 걸맞은 결과를 받는다는 관념.

예 약자를 구한 일이 훗날 자신을 구하는 도움으로 돌아온다.

재자가인형 인물 소설08-03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운 외모 등 비범한 자질을 지닌 인물 유형.

예 주인공이 빼어난 학식과 외모를 갖추었다.

전기성·비현실성 소설08-05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사건이나 초월적 존재·힘이 나타나는 성격.

예 봉인된 거울에서 신령이 나와 하늘길을 열어 준다.

일대기적 구성 소설08-07

주인공의 출생·성장·활동·죽음 등 삶의 흐름을 따라 전개하는 구성.

예 주인공의 태어남부터 노년까지 삶을 따라간다.

영웅의 일대기 소설08-08

비범한 출생·능력, 시련, 조력, 극복과 성취 등 영웅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틀.

예 비범하게 태어난 인물이 시련을 겪고 조력을 받아 큰일을 이룬다.

❗ 모든 단계가 반드시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환몽 구성 소설08-09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성.

신호 잠듦·꿈속 경험·깨어남의 틀

예 현실에서 잠듦·꿈속 경험·깨어남으로 이야기를 잇는다.

❗ 꿈속 경험이 현실의 인식 변화와 연결된다. 짧은 꿈 장면 하나만으로 작품 전체가 환몽 구성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몽자류 소설 소설08-23

꿈속의 다른 삶을 겪고 깨어나 삶을 성찰하는 소설 유형.

예 꿈속에서 다른 신분의 인생과 부귀영화를 겪고 깨어나 성찰한다.

❗ 꿈속의 부귀영화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 등을 깨닫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몽유록계 소설 소설08-24

현실 인물이 꿈에서 다른 인물들과 만나 교류·토론하는 소설 유형.

예 현실의 인물이 꿈에서도 자신으로서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 현실의 문제를 논한다.

❗ 꿈속에서도 현실 인물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역사·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원적 구성 소설08-10

천상계와 지상계 등 두 세계가 연결되어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

예 천상과 지상의 사건이 서로 연결된다.

적강 소설08-11

천상계 존재가 죄·사정 등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모티프.

예 천상의 별이 죄를 지어 인간으로 태어난다.

❗ 이원적 구성에 나타날 수 있다.

행복한 결말 소설08-12

시련과 갈등을 넘어 소망을 이루거나 안정된 삶에 이르는 마무리.

예 오랜 시련 뒤 가족과 재회하여 평안히 산다.

❗ 모든 고전 소설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소설 유형과 표현

애정 소설·염정 소설 소설08-13

남녀의 사랑과 그 성취·좌절을 중심으로 한 소설.

예 두 사람의 사랑과 혼인의 성취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가정 소설 소설08-14

가족 내부의 관계와 갈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예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린다.

❗ 계모·처첩·상속 등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영웅 소설 소설08-15

비범한 주인공의 시련·극복·성취를 중심으로 한 소설.

예 뛰어난 주인공이 위기를 이겨 내고 공동체를 구한다.

군담 소설 소설08-16

전쟁과 군사적 활약을 중심으로 한 소설.

예 주인공의 전투와 군사적 활약을 중심으로 펼친다.

❗ 영웅 소설과 겹쳐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풍자 소설 소설08-17

인물·세태·사회 질서의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

예 백성을 속이는 권력자의 위선을 비판한다.

전기(傳奇) 소설 소설08-18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설.

예 주인공이 죽은 이의 혼과 만나 대화한다.

❗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기(傳記)와 다르다.

판소리계 소설 소설08-19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정착하거나 판소리 전승과 긴밀히 연결된 소설.

❗ 해학·풍자, 구어적 표현과 격식 있는 표현의 혼용, 장면의 극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우화 소설 소설08-20

동물·식물·사물 등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모습과 교훈 등을 드러내는 소설.

예 여우와 까치의 다툼으로 인간의 거짓과 욕심을 비판한다.

가전·가전체 소설08-21

사물을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가계·행적·평가 등을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글.

예 붓 필생은 대숲 집안에서 태어나 임금의 글을 맡았다. 사관은 그가 권세에도 글을 굽히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장면의 극대화 소설08-22

특정 장면을 세밀하게 길게 펼쳐 감정·흥미·긴장 등을 높이는 방식.

예 잔칫상에 앉은 인물 앞의 떡·국·생선·나물을 차례로 펼쳐 보이며, 음식마다 빛깔과 향을 늘어놓는다.

❗ 특정 장면을 자세히 펼치면 그 장면의 사건 진행이 느려질 수 있다.

헛갈림

우연성 vs 전기성

사건 연결의 뜻밖임 / 사건 내용의 비현실성

● 우연한 만남 / 초월적 존재의 출현

환몽 vs 몽자류·몽유록계

꿈의 안팎 구성 / 꿈속 삶·인물의 성격

● 같은 현실·꿈·현실 틀에서도 경험 양상은 다르다

환몽 vs 이원적 구성

꿈의 안팎 / 두 세계의 연결

● 현실·꿈·현실의 틀 / 천상과 지상의 연결

가전 vs 우화

의인화한 사물의 전기 형식 / 의인화 이야기의 갈등·교훈

✕ 모든 우화가 가전인 것은 아니다

傳奇 vs 傳記

기이한 이야기 / 생애 기록

● 전기 소설 / 인물 전기

주의

! 고전 소설에는 전형적·평면적 인물, 문어체·운문체, 서술자의 개입이 자주 나타나지만 작품마다 차이가 있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2쪽

(가) 장터에서 헤어진 가족을 뜻밖에도 만났다.

(나) 벽에 그린 새가 살아나 주인공을 태우고 날아갔다.

소설08-Q01 (가)와 (나)에서 각각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연성·전기성으로 고르자.

주인공은 현실에서 벼슬을 갈망했다. 꿈속에서 높은 지위의 기쁨과 몰락을 겪은 뒤, 깨어나 이전의 욕망을 돌아보았다.

소설08-Q02 구성 이름과 꿈속 경험이 현실의 주인공에게 미친 영향을 쓰자.

(가) 먹물의 가게와 공적을 사람의 전기처럼 적고 마지막에 그 삶을 평가했다.

(나) 주인공이 넘어지는 짧은 순간을 여러 동작과 익살스러운 말로 길게 펼쳤다.

소설08-Q03 (가)는 가전·군담 소설 중, (나)는 요약적 제시·장면의 극대화 중 무엇인가?

3부 극

3부 극

극01 극의 인물·대사·행동

핵심 질문 대사와 행동이 관객에게 어떤 사건과 갈등을 보여 주는가?

한눈에

대본: 정보

해설 극01-04

장면 표시 극01-08

대본: 지시

지시문·지문 극01-05

동작 지시문 극01-06

무대 지시문 극01-07

대본: 말

대사 극01-09

대사: 말의 상대와 듣는 사람의 약속

판단 기준

대화 극01-11

인물들이 상대에게 말을 주고받는다

독백 극01-12

상대와 대화하지 않고 혼자 한다

방백 극01-13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다

영상 용어 다섯 묶음

장면·단위

장면·신(scene) 극01-16

S#·Scene Number 극01-17

숏·컷 극01-30

시퀀스 극01-31

소리

NAR·Narration 극01-18

E·Effect 극01-19

M·Music 극01-20

촬영

C.U·Close Up 극01-21

PAN·Panning 극01-22

전환

F.I·Fade In 극01-23

F.O·Fade Out 극01-24

O.L·Over Lap 극01-25

Dis·Dissolve 극01-27

편집

Ins·Insert 극01-26

몽타주·Montage 극01-28

교차 편집·Cross Cutting
극01-29

갈래와 기본 구성

극 극01-01

공연·상영을 전제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 주는 문학.

예 무대 위 인물이 **다투고 화해하는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 준다.

희곡 극01-02

무대에서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쓰는 대본.

❗ 무대와 공연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다.

시나리오 극01-03

영화·영상으로 상영하기 위해 쓰는 대본.

❗ 장면 구분과 촬영·편집의 지시를 활용한다. 촬영·편집으로 시공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내레이션을 쓰기도 한다.

해설 극01-04

주로 처음에 인물·배경·무대 장치 등 기본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

예 ‘무대는 작은 부엌. 식탁 하나와 의자 두 개.’

지시문·지문 극01-05

인물의 표정·동작·심리, 무대와 음향·촬영 등을 지시하는 부분.

신호 괄호나 별도 문장으로 행동·무대·음향 등을 지시함

예 ‘불이 꺼진다. 멀리 종소리가 들린다.’

동작 지시문 극01-06

인물의 움직임·표정·말투 등을 지시하는 부분.

예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선다.)’

무대 지시문 극01-07

무대 배치·조명·장치 등 공연 환경을 지시하는 부분.

예 ‘무대 오른쪽에 창문, 왼쪽에 낮은 문.’

장면 표시 극01-08

시나리오에서 장면의 번호·장소·시간 등을 제시하는 부분.

신호 장면 번호 다음에 장소·시간이 제시됨

예 ‘S# 7. 버스 정류장, 새벽’

대사 극01-09

등장인물이 하는 말.

예 연우: 아직 늦지 않았어. 함께 가자.

❗ 성격·심리·관계·갈등을 드러내며 사건을 진행시킨다.

현재화된 표현 극01-10

사건이 관객 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듯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제시되는 성격.

예 해설로 지난 일을 요약하는 대신 배우가 지금 문을 두드린다.

대사의 종류와 사건의 전개

대화 극01-11

인물들이 상대에게 말을 주고받는 것.

예 ‘네가 그랬니?’ / ‘아니, 난 몰랐어.’

독백 극01-12

등장인물이 상대와 대화하지 않고 혼자 하는 말.

예 혼자 남은 인물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중얼거린다.

❗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방백 극01-13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말.

신호 방백 표시 또는 다른 인물은 못 듣는다는 설정

예 다른 인물이 옆에 있지만 **관객에게만** **속뜻을 들려준다**.

막·장 극01-15

희곡을 나누는 구성 단위.

예 제2막 제1장처럼 큰 단위와 작은 단위를 나눈다.

❗ 막은 큰 구분, 장은 그 안의 더 작은 장면 구분으로 쓰인다.

극의 구성 단계 극01-14

사건 전개를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으로 살피는 틀.

예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 뒤 **하강을 거쳐** **대단원으로** 마무리한다.

❗ 모든 작품이 이 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장면·신(scene) 극01-16

시나리오의 기본 구성 단위.

예 밤의 집 장면에서 **다음 날 아침 시장** **장면으로** 바뀐다.

❗ 장소·시간·행동의 전환 등을 기준으로 나눈다.

주요 시나리오 용어

S#·Scene Number 극01-17

장면 번호.

신호 S# 뒤의 숫자

예 S# 12로 열두 번째 장면을 표시한다.

❗ 장면을 구분하고 순서를 표시한다.

숏·컷 극01-30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얻는 영상 단위.

예 카메라가 끊기지 않은 채 **한 인물의** **움직임을 한 번에 촬영한다**.

❗ 숏을 컷이라고도 부른다. 컷은 쓰이는 문맥에 따라 편집·전환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장면과 혼동하지 않는다.

시퀀스 극01-31

여러 장면을 하나의 독립된 사건 단위로 묶은 것.

예 승강장·객실·역 밖 장면을 **‘고향 도착’**이라는 한 사건 단위로 묶는다.

❗ 숏·장면·시퀀스는 같은 크기의 단위가 아니다.

NAR·Narration 극01-18

화면 밖에서 사건·배경·생각 등을 들려주는 내레이션.

신호 NAR 표시나 화면 밖 설명 목소리

예 인물 모습 없이 **화면 밖 목소리**가 옛일을 설명한다.

E·Effect 극01-19

효과음.

신호 E 표시와 함께 제시된 효과음

예 E: 천둥 치는 소리.

❗ 분위기나 사건의 상황을 소리로 전달한다.

M·Music 극01-20

음악.

신호 M 표시와 함께 제시된 음악

예 M: 잔잔한 현악 음악.

❗ 분위기·정서·긴장 조절 등에 쓰인다.

C.U.·Close Up 극01-21

인물이나 대상의 일부를 크게 잡아 보여 주는 촬영.

예 눈가의 눈물을 화면 가득 잡는다.

PAN·Panning 극01-22

카메라의 자리는 고정된 채 방향을 좌우로 움직이는 촬영.

예 카메라를 옮기지 않고 좌우로 돌려 방을 훑는다.

F.I.·Fade In 극01-23

화면이 점차 밝아지며 장면이 드러나는 효과.

예 검은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들판을 드러낸다.

F.O.·Fade Out 극01-24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며 장면이 사라지는 효과.

예 인물의 얼굴이 서서히 어두워져 사라진다.

O.L.·Over Lap 극01-25

앞뒤 화면을 겹치며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

예 현재의 역에 옛 역의 모습을 겹치며 앞 화면을 지운다.

❗ O.L.과 Dis.는 모두 화면이 겹치며 바뀌는 전환으로, 뜻이 겹친다.

▶ 극01-27

Dis.·Dissolve 극01-27

한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전환.

예 바다 화면이 사라지는 동안 들판 화면이 점차 나타난다.

▶ 극01-25

Ins.·Insert 극01-26

진행 중인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것.

예 달리는 인물 장면 사이에 시계 화면을 끼운다.

몽타주·Montage 극01-28

여러 화면을 선택·결합하여 사건·시간·의미를 구성하는 편집.

예 훈련하는 여러 날의 모습을 선택해 이어 붙인다.

교차 편집·Cross Cutting 극01-29

서로 다른 장소의 사건이나 상황을 번갈아 보여 주는 편집.

예 갇힌 사람과 구하러 오는 사람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준다.

헛갈림

독백 vs 방백

혼자 말함 / 다른 인물은 못 듣는다는 약속

❌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대화일 수 있다

소설 vs 희곡의 5단계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

● 분석의 기본 틀이며 모든 작품의 고정 형식은 아니다

O.L. vs Dis.

앞뒤 화면이 겹치며 바뀌는 전환

● 두 표현은 화면 전환 기능이 겹친다

샷 vs 장면 vs 시퀀스

연속 촬영 / 시공간·행동의 한 장면 / 독립된 사건 묶음

● 한 시퀀스가 여러 장소의 장면을 포함할 수 있다

주의

! 극은 인물의 대사·행동이 중심이다. 지시문 속 행동과 침묵도 갈등의 근거가 된다.

! 기법의 이름에 그치지 말고 인물·장면을 근거로 효과를 확인한다. 클로즈업이 드러내는 심리, 여러 날의 장면을 이어 붙일 때의 시간 압축 등을 살핀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2쪽

S# 3. 학교 복도, 저녁

유나: 문이 잠겼어.

민재: (주머니의 열쇠를 만지다가 손을 뺀다.) 나는 몰라.

극01-Q01 ‘학교 복도, 저녁’이 주는 정보 두 가지와 괄호 부분의 기능을 쓰자.

민재: (방백) 사실 열쇠는 내게 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

유나: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극01-Q02 유나는 방백에 담긴 사실을 들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낡은 사진을 쥐 손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C.U.). 이어 어린 시절의 운동장이 서서히 나타난다(Dis.).

극01-Q03 C.U.가 부각하는 대상과 Dis.가 하는 일을 각각 쓰자.

4부 수필

4부 수필

수필01

경험·생각·표현

핵심 질문 경험과 관찰이 어떤 생각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가?

한눈에

경험·관찰 수필01-06



기억·생각과 인식 변화

연상·인식의 변화

수필01-08



삶의 의미·성찰

교훈적·성찰적 성격

수필01-05

! 모든 수필이 이 순서는 아니다.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

일화 수필01-07

직접 진술과 간접적 제시 수필01-09

수필의 성격

수필 수필01-01

글쓰기의 경험·관찰·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산문.

예 글쓰기가 낡은 가방을 정리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자유로운 형식 수필01-02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전개하는 성격.

예 관찰·회상·생각을 내용에 맞는 순서로 엮는다.

! 글 내부의 짜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재의 다양성 수필01-03

일상 경험·사물·자연·여행·독서·사회 현상 등 다양한 대상을 다룰 수 있는 성격.

예 버스 기다림, 여행, 독서, 나뭇잎도 글감이 된다.

개성적·고백적 성격 수필01-04

글쓰기의 체험·취향·가치관과 내면이 드러나는 성격.

예 글쓰기가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취향을 털어놓는다.

교훈적·성찰적 성격 수필01-05

경험과 관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성격.

예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며 소유에 매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

경험에서 성찰로 이어지는 구조

경험·관찰 수필01-06

글쓴이가 겪은 사건이나 주목한 대상.

예 낯선 이에게 길 안내를 받은 일을 떠올린다.

❗ 생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일화 수필01-07

생각이나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짧은 이야기.

예 우산 하나를 나누어 썼던 짧은 이야기로 배려를 드러낸다.

연상·인식의 변화 수필01-08

대상에서 기억과 생각이 이어지거나, 처음의 판단을 새롭게 바꾸는 것.

예 서툰 손길을 보고 답답해하다가 기다려 주는 일의 가치를 깨닫는다.

직접 진술과 간접적 제시 수필01-09

깨달음을 직접 밝히거나 장면·비유·행동으로 드러내기.

예 ‘기다림도 배려다’고 직접 말하거나, 재촉하지 않는 장면으로 보여 준다.

❗ 결말에 교훈이 명시되지 않아도 반복·대비·제목에서 중심 의미를 읽을 수 있다.

▶ 시09 · 소설07

햇갈림

자유로운 형식 vs 짜임 없음

고정 형식에서 자유로움 / 내용이 무질서함

❌ 자유롭다고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설 vs 수필

허구적 구성 / 글쓴이 경험·생각 중심

🕒 수필에도 선택·재구성과 문학적 표현이 쓰인다

주의

!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되, 선택·재구성과 문학적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사실 기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짧은 확인

정답·해설 ▶ 82쪽

나는 금 간 그릇을 버리려 했다. 그러나 그릇 바닥의 서툰 이름을 보고, 처음 그것을 만들던 날을 떠올렸다. 흠집은 쓸모의 끝만을 뜻하지 않았다.

수필01-Q01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과 그 대상을 통해 얻은 생각을 각각 쓰자.

매일 지나던 나무에 새순이 돋은 날, 나는 그동안 나무가 아무 변화도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렸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람은 계속되고 있었다.

수필01-Q02 처음의 판단과 나중의 깨달음의 차이를 “변화가 없다·보이지 않아도 자란다”를 써서 답하자.

부록 — 고전 어휘 사전

옛 표기는 유지하고 현대어 뜻을 옆에 적었다. 아래아가 든 말은 읽기 대응을 기준으로 찾아보자. 같은 표기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옛 표기	현대 대응	뜻	헛갈리는 말·주의
구릅	강	강	아래아를 임의로 ‘아’로 바꾸어 원형을 없애지 않는다
가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
굿	끝	끝	굿과 연결
건듯	문득	문득·갑자기	—
계우다	못 이기다	감정·상태 등을 감당하지 못하다	—
-고자	바람	-하고 싶다	소망·희망
-고져	바람	-하고 싶다	소망·희망
고쳐	다시	다시·거듭	고터와 연결
고터	다시	다시·거듭	고쳐와 연결
곧	곳	장소·자리	꽃을 뜻하는 곳·곳과 구별
-곰	강조	앞말의 뜻을 강조함	풀이에서 앞말을 되풀이해 강세를 살릴 수 있음
곰비	뒤	뒤	님비·림비: 앞
곳	꽃	꽃	장소의 뜻으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
꽃	꽃	꽃	곳과 연결
괴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
금수	비단 같은 산천	금게 물든 산천: 문맥에서 가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굿	끝	끝	굿다(끓어지다)와 품사 구별
굿다	끓어지다	끓어지다·그치다	굿다와 연결
긱다	끓어지다	끓어지다·그치다	굿다와 연결
-ㄴ다	의문	주어가 2인칭일 때의 의문 용법	현대 평서형 -ㄴ다와 구별
-ㄴ더	감탄	-구나·-도다 등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누래	날개	날개	놀애와 연결
놀애	날개	날개	누래와 연결
낫브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현대어 ‘나쁘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옛 표기	현대 대응	뜻	헛갈리는 말·주의
낙돏다	영리하다	영리하다·약다	—
-녀	의문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다시 판단
녀다	가다	가다; 지나다·살아가다	두음 법칙만 적용해 ‘여다’로 바꾸지 않는다
녀름	여름	여름 계절	여름: 열매
네	옛날	옛날	—
녹양	푸른 버들	푸른 버들: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녹음	짙은 나무 그늘	짙은 나무 그늘: 여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뇨	의문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다시 판단
늦기다	흐느끼다	흐느끼다	현대어 ‘느끼다’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
님비	앞	앞	곰비: 뒤
두려	에게	상대를 나타냄	문장 관계로 판단
다호라	갈구나	갈구나	—
다히	쪽	쪽·방향	문장 관계로 판단
도곤	보다	비교의 기준을 나타냄	누구·무엇과 비교하는지 확인
도화	복사꽃	복사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동풍	봄바람	동쪽 바람; 문맥에서 봄바람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도타	종다	종다	깨끗하다는 뜻의 조타와 구별
동다	종다	종다	도타와 연결
두견화	진달래꽃	진달래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들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소리를 듣다’와 문맥으로 구별
들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들다와 연결
-르샤	감탄	-구나·-도다 등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르셔	감탄	-구나·-도다 등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르세라	염려	-할까 두렵다	문맥에서 염려를 확인
-르시	-므로	까닭·이유를 나타냄	아래아와 가 결합한 옛 모음; -르씨와 연결
-르씨	-므로	까닭·이유를 나타냄	아래아와 가 결합한 옛 모음; -르시와 연결

옛 표기	현대 대응	뜻	헛갈리는 말·주의
라와	보다	비교의 기준을 나타냄	누구·무엇과 비교하는지 확인
림비	앞	앞	림비의 이형태; 곰비: 뒤
마초아	마침	마침	모쳐라와 연결
몰다	마름질하다	마름질하다·재단하다	첫 글자의 모음은 아래아(·)
머흘다	험하다	험하다	받침 ㄹ에 유의
모쳐라	마침	마침	마초아와 연결
무스	무슨	무슨	무슴과 연결
무슴	무슨	무슨	무스와 연결
무심하다	욕심 없다	욕심·잡념이 없다	문맥에 따라 마음이 없다는 다른 뜻도 살핀다
의다	미워하다	미워하다	—
백구	흰 갈매기	갈매기	자연 속 삶과 연결되기도 하며 문맥으로 판단
백설	흰 눈	흰 눈: 겨울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버히다	베다	베다	—
버기다	우기다	우기다·모함하다	첫 음절 모음 ㅓ에 유의
삭풍	북풍	매서운 북풍: 겨울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쏘다	사뢰다	윗사람에게 말씀을 올리다	—
삼기다	생기다	생기다·태어나다·만들다	문장 속 주체와 대상을 보고 뜻을 고른다
새오다	질투하다	질투하다	—
선후다	서운하다	서운하다	현대어 ‘선하다’와 구별
세우	가는 비	가는 비: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손딴	에게	상대를 나타냄	문장 관계로 판단
수이	쉽게	쉽게	—
슬미다	싫고 밍다	싫고 밍다	—
슬꺾장	실컷	실컷	슬꺾지와 연결
슬꺾지	실컷	실컷	슬꺾장과 연결
슬허허다	슬퍼하다	슬퍼하다	—
식여디다	사라지다	사라지다·죽어 없어지다	첫 음절의 표기에 유의

옛 표기	현대 대응	뜻	헛갈리는 말·주의
실술	귀뚜라미	귀뚜라미: 가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씩우다	꺼리다	꺼리다	현대어 ‘모자를 씌우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아히	아이	아이	—
애	에	장소 등에 연결하는 용법	앞말과의 관계 확인
어리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현대의 나이 어림과 구별
어엿브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예쁘다로 자동 대응하지 않는다
어와	아아	감탄하는 말	어즈버와 연결
어즈버	아아	감탄하는 말	어와와 연결
에	에	장소 등에 연결하는 용법	앞말과의 관계 확인
여름	열매	열매	녀름: 여름 계절
여히다	이별하다	이별하다·헤어지다	아래아가 든 표기를 유지
여희다	이별하다	이별하다·헤어지다	여히다와 연결
예	에	장소 등에 연결하는 용법	앞말과의 관계 확인
오던되다	방정맞다	방정맞다	—
외다	그르다	그르다·틀리다	—
우웬	웃음	웃음	—
우희	전에·위에	시간 뒤에서는 전에; 공간·사물 뒤에서는 위에	앞말이 시간인지 공간·사물인지 확인
은산	은빛 산	눈 덮인 산: 겨울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의	에	장소 등에 연결하는 용법	현대 관형격 ‘의’만으로 해석하지 않음
이화	배꽃	배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잇가	높임 의문	-바니까--습니까	상대를 높임
-잇고	높임 의문	-바니까--습니까	상대를 높임
자규	두견새	두견새	정한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정서는 문맥으로 판단
주로	자주	자주	아래아를 유지
잘다	짧다	짧다	—
저허후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

옛 표기	현대 대응	뜻	헛갈리는 말·주의
저근덧	잠깐	잠시 동안·잠깐	—
점다	젊다	젊다·어리다	어리다: 어리석다
조타	깨끗하다	깨끗하다	조후다와 연결
조후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좋다는 뜻의 도타와 구별
종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동다와 구별
즈믄	천	천(千)	—
쿠니와	물론이거니와	앞 내용을 인정하며 다음 내용을 이음	문맥에 맞춰 연결
하	매우	매우	정도 부사; 부름의 조사 ‘하’와 구별
하	이시여	대상을 부르는 조사	정도 부사 ‘하(매우)’와 구별
하다	많다	많다·크다	후다: 하다
후다	하다	하다	하다: 많다·크다
후마	이미	이미·벌써	—
하운	여름 구름	여름 구름: 여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행화	살구꽃	살구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헌수 후다	야단스럽다	야단스럽다	—
험	생각	생각·걱정	험·헤음과 연결
허다	켜다	켜다·연주하다·당기다	목적어에 맞게 뜻을 고른다
헤음	생각	생각·걱정	험·험과 연결
험	생각	생각·걱정	험·헤음과 연결
황운	누런 구름·곡식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할 때 가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희	에	장소 등에 연결하는 용법	앞말과의 관계 확인

다시 비교하기

헛갈리는 개념	구별 기준	다시 볼 단위
화자 / 서술자 / 작가	화자는 시의 말하는 존재, 서술자는 이야기의 전달자, 작가는 실제 창작자이다. 작품 안의 목소리를 창작자와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시01·소설05
청자 / 시적 대상	말을 건네는 상대인가, 이야기하고 주목하는 대상인가의 차이. 같은 존재가 둘 다 될 수 있다.	시01
정서 / 태도 / 어조	느끼는 마음 / 대응하는 자세 / 말에서 느껴지는 목소리. 한 어휘가 여러 기준에 관련될 수 있다.	시02
공감각 / 복합 감각	감각의 전이가 있는가, 서로 다른 감각이 나란히 제시되는가를 확인한다.	시03
상승·하강 / 긍정·부정	움직임의 방향과 화자의 가치 판단은 별개의 기준이다.	시03
비유 / 상징	빗대는 관계와 대상이 품는 의미에 각각 초점을 둔다. 표면상 원관념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시04
의인 / 감정 이입	사람의 성질을 부여하는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도 부여하는가를 구별한다.	시04·시08
감정 이입 / 객관적 상관물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지와 대상이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지를 구별한다.	시08
반어 / 역설	겉말과 의도가 반대인가, 표현 자체의 모순이 문맥에서 의미를 만드는가를 구별한다.	시06
설의 / 실제 질문	생각을 강조하는 질문인가, 답을 알아내려는 질문인가를 확인한다.	시06
대구 / 대조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짝짓는 형식과 의미의 차이를 맞세우는 관계이다.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시07
열거 / 점층	나열만 하는가, 나열을 따라 강도·범위 등이 커지는가를 확인한다.	시07
도치 / 주객전도	말의 순서를 바꾸는가, 인식·행동의 주체와 대상 관계를 바꾸는가를 확인한다.	시07·시08
성격 / 심리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과 특정 상황에서의 마음 상태를 구별한다. 순간의 기분 변화가 곧 입체적 인물의 근거는 아니다.	소설01
평면·입체 / 전형·개성	성격이 변하는지와 집단의 대표성·개인의 고유성이 두드러지는지는 별개 기준이다.	소설01
직접·간접 제시 / 시점	인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서술자의 위치·정보 범위는 같은 분류가 아니다.	소설01·소설05
역순행 / 액자	시간의 배열과 이야기의 안팎 구조는 다른 기준이다. 회상이 곧 액자는 아니다.	소설03
시점 / 초점 / 신뢰성 / 거리	서술 위치와 정보 범위, 지각의 중심, 판단의 신뢰도, 두 주체 사이의 가까움을 나누어 본다.	소설05

헛갈리는 개념	구별 기준	다시 볼 단위
심리 서술 / 서술자의 논평	인물의 마음을 전하는가, 서술자가 자기 평가를 드러내는가를 확인한다.	소설05
풍자 / 해학 / 희화화	비판 의도, 웃음의 성격,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표현을 구별한다.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소설06
우연성 / 전기성	사건 연결의 우연과 사건 내용의 비현실성을 구별한다.	소설08
개연성 / 필연성	일어날 법한가와 주어진 조건에서 반드시 이어질 결과인가의 차이이다.	소설02
독백 / 방백	혼자 하는 말인지, 다른 인물에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말인지를 구별한다.	극01
소설 / 수필	허구적 인물·사건을 구성하는 소설과 글쓰이의 경험·생각에 중심을 두는 수필의 기본 성격을 구별한다.	소설01·수필01
낙관 / 낙천	앞날의 전망 / 삶을 밝게 받아들이는 성향	시02
반성 / 성찰	잘못·부족함을 돌아봄 / 삶과 마음을 폭넓게 살핌	시02
영탄적 / 영탄법	감정이 강한 성격 / 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	시02·시06
평면적 인물 / 평면적 구성	성격이 유지됨 / 시간 순서대로 서술됨	소설01·소설03
병렬 / 옴니버스 / 피카레스크	나란한 흐름 / 공통 주제로 묶음 / 같은 인물의 삽화들	소설03
소설 / 희곡의 5단계	소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희곡: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 적용의 기본 틀이다.	소설03·극01
요약적 제시의 두 용법	인물의 직접 설명 / 사건 시간의 압축	소설01·소설06
대구 /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나란히 짝지은 관계 / 문장 짜임의 반복	시07
몽자류 / 몽유록계	꿈속 다른 삶의 경험 / 현실 인물의 정체성을 유지한 교유·토론	소설08

정답과 해설

예시에 제시된 근거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같은 뜻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표현이 달라도 답으로 인정한다.

시01 정답

시01-Q01 시 안에서 말하는 ‘나’다. 실제 창작자인 시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시01-Q02 둘 다. 민서에게 말을 건네면서, 떠난 민서를 생각하는 상황을 말한다.

시02 정답

시02-Q01 정서: 그리움. 태도: 의지. ‘열겠다’가 삶을 이어 가려는 뜻을 드러낸다.

시02-Q02 (가) 낙관적. 해결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나) 반성적.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본다.

시02-Q03 (가) 자조적. 자기 모순을 비웃는다. (나) 저항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

시02-Q04 체념적.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기다림을 포기한다.

시03 정답

시03-Q01 부정적. ‘빠앗는다’가 편히 머물 어둠을 침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시03-Q02 붉은·흰. 둘째 문장은 종소리에 의한 청각적 이미지이다.

시03-Q03 O. ‘떨어진다’는 하강이고, 가뭄 끝의 비를 두 손을 펴서 맞는 모습은 비를 반기는 근거다.

시03-Q04 청각의 촉각화. 소리를 피부로 느낄 법한 까슬까슬함으로 표현한다.

시04 정답

시04-Q01 ‘내 걱정을 조용히 들어 준다’. 타인의 걱정을 이해하며 들어 주는 인간적 행동을 부여했다. ‘앓아’는 생명체 일반에도 가능한 동작이어서, 걱정을 들어 준다는 표현이 더 분명하다.

시04-Q02 관습적 상징. 한 개인만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공유되었다.

시05 정답

시05-Q01 ‘열면’, ‘온다’. 일부 낱말을 바꾸면서 같은 문장 틀을 되풀이한다.

시05-Q02 O. 유사한 호흡을 되풀이하여 리듬감과 통일감을 만든다.

시05-Q03 시선 이동. 창가에 선 채 눈길이 향하는 대상과 방향이 달라진다. 실제 이동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시05-Q04 전환. 모든 길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향이 달라진다.

시06 정답

시06-Q01 (가) 반어. 일찍 왔다는 겉말로 늦음을 비꼰다. (나) 역설. 침묵을 외침이라고 표현하여 말 없는 행동의 강한 의미를 드러낸다.

시06-Q02 아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실제 질문이다.

시06-Q03 청자는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친구의 응답은 제시되지 않아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시07 정답

시07-Q01 둘 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지으며, 단음과 열음·슬픔과 기쁨을 대비한다.

시07-Q02 점층. 목소리의 강도가 속삭임에서 외침으로 커진다. 앞말을 이어받는 연쇄도 함께 나타난다.

시07-Q03 (가) 도치: ‘우리의 약속을’이 서술어 뒤에 놓인다. (나) 과장: 기다린 시간을 천 년으로 부풀린다. (다) 행간 걸침: ‘달하지 않은’이 다음 행의 ‘그 문’을 꾸민다.

시08 정답

시08-Q01 (나). 화자의 슬픔을 가로수도 느낀다고 표현했다.

시08-Q02 그렇다. 빈 의자가 부재를 떠올리게 하여 슬픔을 드러낸다. 의자 자체가 슬퍼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시08-Q03 추상적 관념: 기다림. 감각적 대상: 긴 실. 길게 이어짐과 움직이지 못함을 부각한다.

시08-Q04 ‘나→산’에서 ‘산→나’로 바뀌었다. 주객전도의 관계이며 산을 의인화한 표현이기도 하다.

시09 정답

시09-Q01 연결할 수 있다. 닫힌 문 앞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간직한다는 표현이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뒷받침한다.

시10 정답

시10-Q01 안빈낙도. 가난에도 도리를 지키며 즐기는 태도이다.

시10-Q02 X. 노동과 생계의 걱정이 중심이다. 자연이라는 소재만으로 한가로운 삶을 단정할 수 없다.

시10-Q03 불쌍하다. 비슷한 현대어 소리만 따르지 않고 옛말의 뜻과 대상의 처지를 함께 확인한다.

시10-Q04 (가) 많다. (나) 부름. ‘님’을 부르는 조사로 쓰였다.

소설01 정답

소설01-Q01 입체적. 사건을 겪으며 이기적인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소설01-Q02 X. 두 용어는 사건 속 역할과 대립 관계를 나눈다. 도덕성의 분류가 아니다.

소설01-Q03 (가) 직접 제시: 성격을 설명한다. (나) 간접 제시: 행동으로 약속을 중시하는 성격을 드러낸다.

소설02 정답

소설02-Q01 외적: 인물과 사회의 갈등. 내적: 부당한 규정에 계속 맞설지, 가족을 걱정하여 물러설지의 대립.

소설02-Q02 X. 대립의 원인은 남았고 다툼도 재개될 예정이다.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소설03 정답

소설03-Q01 복선. 문고리가 빠져 탈출하는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암시한다.

소설03-Q02 역순행적이다. 마지막 사건을 먼저 보여 주고 과거로 돌아가 원인을 제시한다.

소설03-Q03 바깥: ‘나’가 산장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일. 안쪽: 노인이 들려준 마을의 옛일. 액자 구성이다.

소설04 정답

소설04-Q01 ①. 이동을 제한하는 배경이 창고의 식량을 함께 나누는 사건과 연결된다. 외부에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소설04-Q02 갈등 해소. 편지가 사실을 밝혀 오해를 풀고 사과하게 한다.

소설05 정답

소설05-Q01 그렇지 않다. 밖으로 말하지 않은 준호의 두려움까지 서술한다. 적어도 인물의 내면에 접근하는 서술이다.

소설05-Q02 유진의 눈으로 본 장면이다. 유진은 삼촌의 표정을 보지만, 거실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른다. 이 짧은 부분만으로 작품 전체의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소설05-Q03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생계를 걱정하지만 ‘나’는 함께 놀 수 있는 좋은 일로 판단한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이해의 한계 때문에 서술자의 해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소설05-Q04 심리 전달: (가). 서술자의 평가: (나). 두려움이라는 인물의 마음과 무책임하다는 서술자의 판단을 구별한다.

소설05-Q05 X. 내면에 접근하는 정도와 인물에 대한 평가·공감은 별개이다.

소설06 정답

소설06-Q01 (가). 십 년의 일을 한 문장에 요약한다. (나)는 짧은 순간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인다.

소설06-Q02 X. 심리 설명은 있지만 연상에 따라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설06-Q03 (가). 짧고 간명한 문장을 이어 쓴다. (나)는 수식과 절을 길게 이어 장면을 펼친다.

소설06-Q04 대상: 절약을 외치던 관리. 모순: 절약을 요구하면서 백성의 돈으로 황금 손가락을 맞춤. 모순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므로 풍자적이다.

소설07 정답

소설07-Q01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설07-Q02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같은 뜻으로, 혼자만의 힘을 고집하지 않고 상호 도움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써도 된다.

소설07-Q03 O. 관점이 바뀌면 형에게 없던 정보가 드러나 동생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소설08 정답

소설08-Q01 (가) 우연성. 뜻밖의 만남이다. (나) 전기성. 그림 속 새가 살아나는 비현실적 사건이다.

소설08-Q02 환몽 구성. 꿈속에서 영욕을 겪은 일이 현실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소설08-Q03 (가) 가전. 사물을 의인화하여 생애와 평가를 전기 형식으로 적었다. (나) 장면의 극대화. 짧은 순간을 세밀하게 늘어 펼쳤다.

극01 정답

극01-Q01 장소와 시간. 괄호 부분은 민재의 동작을 지시한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읽는 단서이기도 하다.

극01-Q02 아니다. 방백은 다른 등장인물에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말이다. 관객과 유나의 정보 차이가 생긴다.

극01-Q03 C.U.: 사진을 줬 손. Dis.: 현재 화면에서 어린 시절 운동장 화면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수필01 정답

수필01-Q01 대상: 금 간 그릇. 생각: 흠집이 생겼다고 대상의 의미나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

수필01-Q02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았지만,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란다는 것을 깨닫는다.